

한국 사회

2023년 제24집 1호

일반논문

- 2000년대 한국의 세대 개념과 청년세대 호칭의 유형
| 정나리 · 조대엽
- 사회 현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 그로테스크 예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김문조
-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의 연구력과 연구 네트워크
| 이윤정
- 인문 · 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양가적 정동을 통해 본 학술장의 변화
— 국내 박사과정생의 초점집단인터뷰(FGI)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이대성

한국사회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로써 연2회 발간된다. 한국사회연구소는 급변하는 현대 한국사회와 국제지역사회의 제반 현상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구조와 변동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22일 설립되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Homepage: <http://isrku.org>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2023년도 한국사회연구소 임원

소장

김원섭(고려대 사회학과)

부소장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센터장

사회트렌드 센터장: 임인숙(고려대 사회학과)

지역사회개발교육 센터장: 김수한(고려대 사회학과)

데이터분석 센터장: 김선업(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자문위원

노익상(한국리서치)

염재호(고려대)

장하성(고려대)

(이상 가나다순)

운영위원

김수한 김진영 김철규 김형찬 마동훈 박길성 송효종 신현석

윤인진 이명진 임인숙 정일준 조대엽

(이상 가나다순)

한국 사회

2023년 제24집 1호

차례

〈일반논문〉

- | | |
|--|-----|
| ■ 2000년대 한국의 세대 개념과 청년세대 호칭의 유형
 정나리 · 조대엽 | 3 |
| ■ 사회 현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 그로테스크 예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문조 | 29 |
| ■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의 연구력과 연구 네트워크
 이윤정 | 61 |
| ■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양가적 정동을 통해 본 학술장의 변화
— 국내 박사과정생의 초점집단인터뷰(FGI)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대성 | 99 |
| ■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 131 |
| ■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 141 |

2000년대 한국의 세대 개념과 청년세대 호칭의 유형

정 나 리* · 조 대 엽**

요 약

이 연구는 세대 연구에 있어서 세대 호칭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명명해온 세대 호칭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세대 호칭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어들을 출현 시기에 따라 시간순으로 종합하였고, 세대 호칭들의 속성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세대위치', '실제세대', '세대단위'와 같은 만하임의 세대 개념을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했다.

연구 결과 2000년대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동일한 '세대위치' 내에서 더 다양한 '실제세대'와 '세대단위'로 분화되어 다양하게 호명되고 있었다. 인구 통계적 세대 호칭과 전 지구적으로 통용되는 세대 호칭은 '세대위치형'으로 분류되었고, 사회적 사건, 문화적 특징 등 한국의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등장 배경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대 호칭들은 '실제세대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계층적 상황과 관련된 사회구조 기반 세대 호칭은 '세대단위형' 세대 호칭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유형화는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고도 혼란스럽게 난립한 세대 개념을 각 개념이 포괄하는 의미에 따라 분석적으로 분류하는 의의를 지닌다. 비록 개괄적 분류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유형화가 보다 체계적인 세대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청년세대, 세대 호칭, 세대위치, 실제세대, 세대단위, 만하임

* 제1저자, 정책마루 선우재 초빙연구위원, cozy0401@naver.com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dycho@korea.ac.kr

I. 서론

청년들은 시대와 시기, 장소와 상황에 따라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다. 근대화 이후 한국 청년들은 국가 건설의 주역, 계몽주의자, 산업역군, 반공 전사, 민주화 투사로 호명되었고(이기훈, 2014) 밀레니엄 이후에도 ‘IMF세대’, ‘P세대’, ‘N세대’, ‘88만원세대’, ‘3포세대’, ‘달관세대’, ‘코로나세대’ 등으로 불리며 시시각각 이름을 바꾸며 존재했다. 2000년 이후 새로운 세대로 호명되는 연령 집단의 대부분이 20~30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대는 청년이다. 과거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사회변동을 이끄는 역동적 존재로 그려져 왔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 비정규직과 같은 일자리 문제와 그로 인한 주거, 빈곤, 성인기 이행 지연 등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남에 따라 청년 문제는 세대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청년세대 호칭들이 쏟아졌다.

현상을 해석하고 진단하고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하다. 명명된다는 것은 대상의 존재가 비로소 인정되고 대상만의 고유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름은 대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호명의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추측하는 수단이 된다. 한편, 이름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체의 편익에 따라 붙여지게 마련이다. 청년세대를 규정하고 청년을 평가하고 청년의 삶을 진단하는 주체는 대체로 청년 밖의 집단이었다. 언론, 정치인, 학자, 기업은 대표적인 ‘세대 작명가’들이다. 선거철이 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눈여겨 볼만한 통계가 보고되거나, 새로운 집단행동이 나타날 때 이들은 서둘러 새로운 세대 호칭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청년을 규정하는 세대 개념이 다분히 의도가 담긴, 그래서 세대를 제대로 진단하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불순한’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세대 호칭들이 다양한 집단적 이해에 따라 작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호칭들은 해당 세대를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세대는 특정 사회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분석 도구이자 관찰 단

위이다. 세대는 한 사회의 특정 시기를 대표하고 세대 갈등은 사회가 가진 체계의 모순과 불평등의 구조를 드러낸다. 그래서 세대 담론은 당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와 가치를 상징한다, 이때 세대 호칭은 세대 담론의 주요 요소로 기능한다(박재홍, 2014).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세대 연구의 한 축으로 세대를 명명하는 호칭들을 종합하고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을 향한 다양한 세대 용어들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대 호칭이 가진 상징성과 중요성에 착안하여, 또 세대 연구에 있어 세대 호칭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명명해온 세대 호칭들을 유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청년세대를 명명하는 호칭들을 시계열로 망라한 후, 각각의 호칭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면서 청년세대 호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포괄하고, 각각의 청년세대 호칭들이 가진 공통적 특성을 분류하여 세대 호칭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요 언론 기사들에서 자주 언급된 청년세대 호칭들을 추출하여 취합하고 각각의 세대 용어들이 포괄하고 있는 생물학적 연령대와 세대 호칭을 만들어낸 호명 주체, 출현 시기와 유행 시기를 정리할 것이다. 나아가 출현 시기 또는 유행 시기를 기준으로 청년세대 호칭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서 용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술할 것이다. 아울러 세대 호칭의 속성과 용어들 사이에 일련의 규칙성이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호칭이 부여된 방식에 따라 청년세대 호칭들을 유형화하고 분류하는 한편 각각의 세대 호칭이 갖는 의미와 세대 특성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이때 만하임의 세대 개념에서 세대 구성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세대위치, 실제세대, 세대단위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2000년대 청년세대의 세대 호칭들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이 논문은 그동안의 세대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동일 출생 코호트들을 지칭하는 세대 호칭을 포괄해서 유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대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세대 연구에 보다 풍부한 분석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세대를 명명하는 호칭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세대 연구의 공백을 메울뿐더러 심도 있고 시의적절한 청년 세대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세대위치, 실제세대, 세대단위

1. 한국의 세대 호명과 세대 연구

그간의 세대 연구는 대체로 한 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타나거나 기존의 질서에 균열이 생길 때, 또 상식적 관념으로 해석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지는데 그때마다 세대와 같은 새로운 행위집단의 출현이 설득력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래서 한국의 세대 연구는 사회변화를 추동한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고 이전 세대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정진민, 1992; 박재홍, 2003, 2009; 홍덕률, 2003; 황아란, 2009; 심광현, 2010; 민영·노성중, 2013; 최지영·천희주·이명진, 2015; 이현우, 2016; 최셋별, 2018).

한국 사회에서 세대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화 이후 등장한 신세대에 대한 연구(박재홍, 1995; 구자순, 1995)는 2000년대 초반 세대 개념에 관한 관심(박재홍, 2001; 전상진, 2002; 조대엽, 2002; 2003; 박재홍 2003; 전상진, 2004)으로 옮겨갔고 2000년 이후 세대 간 비교 연구(방하남·김기현, 2001; 박경숙, 2003; 박길성·조대엽·함인희, 2005; 최지영·천희주·이명진, 2015)와 세대 갈등과 불평등(신광영, 2009; 박재홍, 2010; 이재경, 2018, 이철승, 2019; 신진욱, 2020, 이철승·정준호, 2020)연구로 확장되었다. 2010년 이후 세대 연구는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정민우·이나영, 2011; 김홍중, 2015; 김석호 외, 2017;

김선기, 2017; 김지경, 2018; 구혜란·구서정, 2019; 정성조, 2019; 고명지, 2020)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신인류, 신세대로 불리기도 하는 새로운 집단은 같은 시기에 출생하여 유사한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비슷한 생애 과정을 경험한다. 그런 이유로 이들 집단은 다른 집단과 차별성을 갖는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형성하고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 학자들은 이들의 집단적 특성을 한데 모아 '세대'로 규정하고 새롭게 명명한 뒤 이들을 사회변동의 주체로 포착한다. 예컨대 1990년대 중반 제도 정치에 진입하기 시작한 소위 '80년대 운동권' 청년들은 '386세대'로 명명되었고, 2002년 월드컵 당시 새로운 광장 문화를 주도한 20~30대는 'P세대'로 불렸으며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끈 젊은이들은 '촛불세대'로 호명되었다. 이처럼 세대 호칭에는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주요한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행위 하는 집단의 정체성이 함축되어 있기에 세대 호칭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세대 연구에 있어 세대 호칭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먼저 세대에 부여되는 용어가 세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수단이자 현상적 본질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다.(전상진, 2004; 박재홍 2009; 김선기, 2014; 이광석·윤자형, 2018) 또 세대 호칭이 세대 차이를 불필요하게 부풀리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박재홍, 2009). 특히 하나의 코호트에 오직 하나의 주요한 세대 특성만을 강조하여 세대 호칭을 부여하여 특정 집단을 과잉 대표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된다(박재홍, 2014; 김선기, 2014).

한국 사회의 세대 연구에서 등장하는 세대 호칭을 살펴보면 대체로 출생 시기 또는 연령에 따라 세대가 구분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세대 집단이 명명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사회의 세대 연구는 주로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사회변동의 해석,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의 규명, 선거의 판도 예측과 결과 분석을 위해 이루어졌는데 이때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연령의 토대 위에 세대를 구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세대 집단을 단일한 이름으로 호명한다. 예컨대 1940~1950년대 출생한 연령 집단에는 ‘산업화 세대’, 1960~1970년대 출생 코호트에는 ‘민주화 세대’ 같은 정형화된 세대 호칭을 부여한다. 이처럼 그간 대부분의 세대 논의나 세대 호칭은 같은 시공간 내에서 동일 코호트가 경험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객관주의적 세대 현상에 천착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특정한 연령 집단으로서의 세대를 하나의 이름으로만 호명하면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특징을 뚜렷이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물론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비슷한 연령 집단을 세대로 규정하는 용어는 각기 달랐다. 이를테면 1960년대생은 학자들에 따라 ‘신세대’(정진민, 1992), ‘386세대’(박재홍, 2003, 홍덕률 2003, 심광현, 2010; 민영·노성중, 2013, 최지영·천희주·이명진, 2015), ‘민주화세대’(박재홍 2009; 황아란, 2009, 이현우 외, 2016), ‘민주화2세대’(홍덕률, 2003), ‘광주세대’(심광현, 2010) 또는 ‘광주항쟁세대’(이현우 외, 2016), ‘베이비붐세대’(최셋별, 2018)로 불렸다. 하지만 이 용어들에서 구세대인 기성세대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된 ‘신세대’와 인구 통계적 특성에 기인한 ‘베이비붐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1960년대생들이 성인기 무렵 경험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흐름과 정치적 사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용어가 공통적으로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생들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전에 출생한 연령 집단 또한 대체로 ‘산업화세대’(박재홍, 2003; 홍덕률, 2003; 박재홍, 2009, 황아란, 2009, 최셋별, 2018), ‘개발세대’(심광현, 2010; 이현우 외, 2016)와 같은 일관된 용어로 명명되고 있다. 결국 세대 구분에 있어 연구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도 하나의 코호트에는 하나의 주요한 세대 특성만을 강조하여 세대 호칭을 부여한다.

〈표 1〉 한국 사회 세대연구와 세대호칭 사례

연구자/발행사기	출생년도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정진민	1992		전전세대	민주세대	신세대					
박재홍	2003	식민지, 전정체 험세대	산업화, 민주화세대		386세대		탈이념, 정보화 세대			
홍익률	2003		산업화세대	민주화1세대 (유신세대)	민주화2세대 (386세대)	정보화세대				
김문조	2004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				
박재홍	2009	식민지, 전정체 험세대	산업화, 민주화세대			탈냉전, 정보화시대				
황아란	2009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신세대					
심광현 (소범주)	2010	해방 세대	전후 세대	4.19세대	유신세대	광주세대	6.10세대	신세대	IMF세대	촛불세대
심광현 (대범주)	2010		6.25세대	개발세대	386세대	신세대				
민영, 노성중	2013				386세대		정보화세대			
최지영, 천희주, 이영진	2015			베이비 붐세대	386세대	X세대	N세대			
이현우 외 (세대)	2016		유신이 전세대	유신체제 세대	광주항쟁 세대	진보대중 화세대	IMF 세대	월드컵 세대	촛불 세대	무상복지세대
이현우 외 (이념)	2016			개발독재 세대	민주화 세대	진보정권 세대	IT세대			
최셋별	2018		산업화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88만원세대			

* 박재홍(2005)의 분류에 이후 연구 논문들에서 분류한 세대 구분을 추가하여 재구성했다.

이처럼 하나의 연구 안에서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해 다양한 세대 호칭을 부여하거나 세대 내 하위 집단들을 더 세분화해서 세대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 세대 연구에서는 치밀한 비판적 검토 없이 세대 호칭을 세대 구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세대 호칭과 세대 담론을 동일시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호칭에 관한 문제는 세대 개념과 세대 이론, 세대 사회학의 방법론적 연구(박재홍, 2001, 2003, 2009; 전상진, 2004)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2000년대 이후 청년세대에 대해 독립적으로 용어를 부여하거나, 부여된 세대 호칭의 의미를 분석하고 세대의 특징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다양하다(정성호, 2003; 우석훈·박권일, 2007; 오찬호, 2010; 전영수, 2013; 김홍중, 2015).

그러나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또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개념과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망라한 이기훈(2014)의 연구가 있지만 1970년대까지의 청년개념의 변천을 추적할 뿐 청년에게 부여되는 세대 호칭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2. 세대위치, 실제세대, 세대단위

‘세대’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또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그 의미가 각기 달리 해석되지만, 흔히 ‘세대’를 지칭할 때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 세대를 계승하거나 대체하는 약 30년 동안의 기간을 일컫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대’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동시대에 태어나 비슷한 생애주기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되며, 자녀, 부모, 조부모 세대와 같이 가계 계승의 단위 또는 기성세대, 청년세대 등과 같이 연령 집단으로 구분된다. 출생 시기나 나이와 같은 계량적 기준에 의한 세대 구분은 세대 개념이 갖는 모호함의 한계를 피할 수 있어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대를 단순히 생물학적 기초로 정의 내리고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세대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뿐더러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세대 갈등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또 세대가 지닌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대 연구에 있어 생물학적 조건 외에 특정한 역사적 경험, 사회문화적 환경, 가치관 등 다양한 생애사적 배경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세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Dilthey, 1875; Mannheim, 1952).

만하임(K. Mannheim, 1952)은 기존에 지배적이던 생물학적 세대 개념과 함께 역사학적 관점에서 정립된 딜타이와 핀더의 이론을 종합하여 사회학적 측면에서 세대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석한다. 만하임은 딜타이의 세대 정의를 차용하여 “17세~25세 사이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커다란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의식, 문화, 지식을 가지게 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출생코호트(들)”로 세대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하나의 동질성을 갖는 집단으로 의식화되는지 주목한다(전상진, 2002).

만하임은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 '실제세대'(generation as actuality), '세대단위'(generation unit)의 개념으로 세대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는 하나의 세대가 나타날 수 있는 본질적인 조건, 즉 비슷한 지리적, 문화적 권역 내에서 동일한 연대기를 가진 비슷한 연령, 출생 코호트를 의미한다. 만하임의 '세대위치'는 '세대' 그 자체로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동일한 세대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사유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세대로 응집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할 뿐이다.

만하임은 생물학적 관점의 세대 개념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위치'와 함께 '실제세대'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실제세대'(generation as actuality)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공통의 경험에 반응하는 특정한 개인들이 능동적 참여와 집합적 행위를 통해 세대로 집단화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태어나 동시대에 생존한다고 할지라도 의미를 가진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세대로 묶일 수 없다. 또 같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의식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세대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하임은 여기에 '세대단위'(generation unit) 개념을 추가해서 고유의 세대 개념을 완성한다. 세대단위는 실제세대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세대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시 세대단위로 분화될 수 있다. 동년배 집단은 동시대에 존재하면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살아온 환경, 계급이나 계층, 가치나 문화, 종교나 신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의식이나 정체성을 갖고 각각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형태로 조직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화된 세대단위들이 보여주는 내적 밀도는 실제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Mannheim, 2013:67). 따라서 '세대단위'는 비슷한 연령대에서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는 다양한 세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세대 간뿐만 아니라 세대 내에서도 대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정한다.

새로운 세대는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데 만하임은 이를 '엔텔레키'(entelechy) 또는 '세대 스타일'(generation style)이라 명명한다. 만하임은 여기에서 모든 '세대위치'에서 '실제세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 모든 '세대'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세대 스타일'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어떤 세대는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와 집단의 식을 갖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도 분명 존재하며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세대의 문화에 귀속되거나 흡수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고유한 세대로 발현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만하임은 모든 연령 집단이 세대로 발현하는 것은 아니며 불연속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하임의 세대 개념은 몇몇 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하임은 실제세대가 세대단위로 분화된 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세대위치와 실제세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세대위치와 실제세대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만, 세대위치가 실제세대로 전환되는 세대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Jaeger, 1985:283; 김선기, 2014 재인용). 아울러 만하임의 개념에서는 세대 형성에 있어 역사적 사건을 제외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김홍중(2015)은 만하임의 세대 개념이 "특정 사건이 야기한 영향을 의식적으로 공유하는 '역사적 세대'(가령 4.19세대, 세계대전 세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런 체험을 공유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세대'들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이 약화 된다"라는 점과 함께 역사적 행위자로 상정된 세대에 과도한 행위 능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하임의 세대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만하임의 세대 개념만큼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이론은 없으며 모든 세대 논의의 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에는 만하임의 이론이 있다. 여태 만하임의 세대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뚜렷한 이론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만하임 이후의 세대 사회학자들이 만하임의 세대 이론의 토대 위에서 세대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변형된 세대 이론의 모형을 제안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Ryder,

1965; Inglehart, 1977; Braungart, 1974; Kertzer, 1983; Bengtson et al., 1985; Edmunds & Turner, 2002; 박재홍, 2005).

III. 2000년대 청년세대 호칭의 변화

2000년 이후 주요 언론 기사에서 자주 언급된 청년세대 호칭들은 복잡하고도 다양하다. 각 용어가 출현했거나 유행한 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세대 호칭이 포괄하고 있는 생물학적 연령대와 세대 호칭을 만들어낸 호명 주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면 표2와 같다. 비교적 자주 언급된 호칭들만 보더라도 X세대부터 MZ세대까지 열거된 청년세대 호칭은 17개에 이른다.

〈표 2〉 2000년대 주요 청년세대 호칭

세대 호칭	출생 시기	호명 주체	출현/국내 유행 시기
X세대	60년대 후반~70년대	더글러스 커플랜드	1991년 출현/1994년 유행
N세대	70년대 중반~80년대	돈 탭스콧	1997년 출현/1999년 유행
에코세대	70년대 후반~80년대	확실하지 않음	확실하지 않음/2001년 유행
IMF세대	70년대	확실하지 않음	2002년 출현/2007년 유행
2차 에코세대	91년~96년	확실하지 않음	확실하지 않음/2017년 유행
P세대	70년대~80년대	제일기획(광고회사)	2003년 출현/유행
88만원세대	79년~89년	우석훈, 박권일	2007년 출현/유행
촛불세대	80년대~90년대 초반	확실하지 않음	2008년 출현/유행
IP세대	80년대~90년대	동아일보	2008년 출현/유행
삼포(3포)세대	70년대~80년대	경향신문	2011년 출현/유행
5포세대	70년대~80년대	확실하지 않음	2014년 출현/유행
7포/N포세대	70년대~80년대	확실하지 않음	2015년 출현/유행
달관세대	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조선일보	2015년 출현/유행
밀레니얼세대 (=M세대)	80년대~90년대 중반	윌리엄 스트라우스, 닐하우	1991년 출현/2010년 유행
Y세대 (=M세대)	80년대~90년대 중반	푸르덴셜사(보험사)	1997년 출현/2010년 유행
Z세대	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확실하지 않음	확실하지 않음/2014년 유행
MZ세대	80년대~2000년대	확실하지 않음	확실하지 않음/2019년 유행

20세기 말 청년들은 'X세대'로 불렸었다. X세대라는 용어는 더글러스 커피랜드의 「X- Generation」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미국에서는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통렬히 거부하는 세대이자 이전의 잣대로는 정의 내리고 규정할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에서도 이전 세대와 다른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가는 1990년대 청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X세대를 사용했다. IMF 외환위기 전까지 이들은 적극적인 소비를 무기로 자신을 드러냈고 IMF 이후에도 한동안 시장의 주요 고객이자 마케팅의 대상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21세기가 시작될 즈음 'X세대'라고 불리던 청년들은 'N세대'로 명명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청년들은 컴퓨터와 PC통신과 같은 온라인 환경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며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이끌었다. N세대는 X세대처럼 다시 청년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경제력과 구매력을 지닌 존재로 부상시켰다.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중반~19960년대 중반 출생)의 자녀들이 성인기에 접어들 무렵이 되자 청년들을 '에코(붐) 세대'로 부르기 시작했다. 2000년 전후로 나타난 대학 진학률의 급증과 노동공급량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청년 인구에 대해 베이비붐이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의미의 '에코세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에코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다시 '2차 에코(붐) 세대'로 등장한다.

IMF 워크아웃이 끝날 무렵 청년들은 'IMF세대'로 불리기 시작했다. IMF 세대는 IMF 외환위기 시절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성인기에 진입한 젊은 세대를 뜻하는 용어로 사회 진입 시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외환위기의 여파로 취업이 늦어지거나 낮은 임금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은 세대를 의미한다. 누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2002년 중앙일보 기사¹⁾에 'IMF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2002년이 되자 청년들은 'P세대'라는 새로운 별칭을 갖게 되었다. 'P세대'는

광장 문화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이 만든 신조어이다. 'P세대'의 'P'는 참여를 뜻하는 'Participation', 열정을 뜻하는 'Passion', 잠재력을 의미하는 'Potential Power'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의미의 'Paradigm Shifter'라는 영단어 공통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P세대'는 청년세대를 사회변동을 주도하는 긍정적인 주체로 인식한 세대 호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청년세대는 '88만원세대'로 불리게 된다. '88만원세대'라는 용어는 2007년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세대」가 출간되어 한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유행한 신조어이다. '88만원세대'에서 88만 원은 "2007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119만 원에 20대의 평균 소득 비율 74퍼센트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뜻한다. 이 호칭의 등장으로 청년들은 'IMF세대' 이후 다시 경제적 측면에서 조롱되기 시작한다.

이듬해인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계기로 청년들은 '촛불세대'라 불리게 된다. 2002년 광장 문화를 이끌었던 청년들은 2008년에 다시 광장으로 나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촛불을 들며 새로운 방식의 사회 운동을 주도했다. 청년들은 창의적 발상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시위를 승화시켰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시위를 확산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 호칭으로 청년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같은 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청년들이 보여준 일련의 문화적 특징을 모아 청년세대를 'IP세대'로 명명했다. 'IP세대'에서 'IP'는 독립적인 생산자(Independent Producer)라는 뜻의 영어 단어의 앞 철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널리 퍼트리는 현상을 강조한 용어이다. 'IP세대'라는 용어는 '촛불세대'와 동일한 청년 집단을 지칭하고 있지만 '촛불세대'가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년을 부각하는 용어라면 'IP세대'는 문화적 창조자로서의 청년들의 특성에 주목한다.

1) 중앙일보. "경기침체·취업난·고시낙방 스트레스 20대들이 쓰러진다". 2002년 2월 8일.

2010년 청년들은 'X세대'의 다음 연령 집단이라는 의미로 'Y세대'로 호명된다. 'Y세대'라는 용어는 1997년에 미국에서 2000년, 즉 Y2000의 주역이 될 세대를 부르면서 생겨난 용어로, 보험회사인 프루덴셜사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정성호, 2003:394). 영미권에서는 '밀레니얼세대'와 'Y세대'를 동일한 세대 집단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Y세대'를 'X세대'나 'Z세대', '밀레니얼세대' 만큼 정리한 연구 내용은 찾기 힘들다.

2011년 경향신문은 한 기사에서 경제적 문제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을 '삼포(3포)세대'로 명명한다.²⁾ '삼포(3포)세대'는 2007년에 등장했던 '88만원세대' 이후 다시 청년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대 호칭이다. 이 용어는 IMF 이후에도 계속되는 불황과 청년 실업으로 다음 세대를 구성해야 할 청년들이 생애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를 반영한다.

이후 2014년에는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자가 주택과 대인 관계를 포기했다는 의미의 '5포세대'가 등장하고 2015년에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세대'가 나온 데 이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의 'N포세대'가 등장한다. 'N포세대'가 등장하던 시기에 조선일보는 희망 없이 자족하며 살아가는 일본의 청년들을 지칭하는 '사토리 세대'를 한국어로 직역하여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달관세대'는 부와 명예, 꿈과 같이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체념적 삶의 태도에 대한 표현이다.

한편 2015년 전후로 '밀레니얼세대'와 함께 'Z세대'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윌리엄 스트라우스와 닐하우의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1991)』에서 처음 등장했다. 'X세대'의 다음 세대인 'Y세대' 이후의 세대라 하여 'Z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밀레니얼세대'와 경계가 모호한 까닭에 최근에는 이 두 연령 집단을 포괄하여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머리글자를 조합해서 'MZ세대'라 부른다. 한국에서 2000년 이후 주요 언론 기사에서 가장 많이

2) 경향신문. "복지국가를 말한다 (1부) ②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2011년 5월 11일.

언급된 세대 호칭은 ‘밀레니얼세대’이다. ‘밀레니얼세대’라는 세대 호칭은 훨씬 이전에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상으로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 출현했던 세대 호칭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해보았다. 종합해보면 2000년대 청년을 명명한 호칭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와 변동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2000년대 청년세대 호칭의 유형

1. 세대위치형 세대 호칭

갑작스러운 인구의 증가는 주류 집단의 변화를 비롯하여 사회변동을 추동하고 미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인구학자들과 세대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주목했다. 따라서 출생 시기 기반의 세대 호칭은 해당 연령 집단의 인구 특성에 착안하여 명명된다. 인구 통계적 특성을 반영한 ‘에코(붐) 세대’나 ‘2차 에코(붐) 세대’나 전 지구적으로 통용되는 세대 용어인 ‘X세대’, ‘Y세대’, ‘Z세대’, ‘밀레니얼세대’, ‘M세대’, ‘MZ세대’와 같은 용어는 만하임의 ‘세대위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에코(붐)세대’는 전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태어난 연령 코호트의 자녀 세대로 대량 출산이 다음 세대에 메아리처럼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세대 용어이다. ‘에코(붐)세대’와 ‘2차 에코(붐)세대’는 각각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 세대로부터 태어난 자녀 세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에코(붐)세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1950년대 증반에서 1960년대 초증반생들의 자녀 세대인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에 태어난 연령 코호트를 지칭하고, ‘2차 에코(붐)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증반에 출생한 부모

세대로부터 태어난 1991년에서 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에코(봄)세대’와 ‘2차 에코(봄)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갑자기 늘어난 인구 규모를 특징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들은 출생 시기와 인구통계학적 내용만이 부각되는 ‘세대 위치적’ 세대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X세대’, ‘밀레니얼세대(=M세대=‘Y세대’), ‘Z세대’, ‘MZ세대’와 같은 세대 호칭 또한 ‘세대위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사용되는 세대 호칭의 기준은 ‘X세대’이다. 이후의 연령 집단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맥락적 기준 없이 ‘X세대’의 다음 철자인 ‘Y’와 ‘Z’로 다음 세대를 이름 짓고 구분할 뿐이다. 그런데 ‘X세대’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난 베이비붐세대 다음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194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연령 집단이라면 ‘X세대’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에 태어난 연령 집단으로 구분되며 ‘Y세대’ 또는 축약해서 ‘M세대’라 불리는 ‘밀레니얼세대’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연령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Z세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연령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통용되는 세대 호칭 또한 출생 시기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에코(봄) 세대’, ‘2차 에코(봄) 세대’를 비롯하여 ‘X세대’, ‘밀레니얼세대(=M세대=‘Y세대’), ‘Z세대’, ‘MZ세대’ 세대 등은 ‘세대위치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2. 실제세대형 세대 호칭

특정 연령 집단의 인구 규모를 특징으로 삼는 인구 통계적 기준이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출생 시기 기반의 세대 호칭과 달리 한국의 사회변동과 구조,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대 호칭 중 일부는 ‘실제세대’적 맥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사건의 호칭을 따서 만들어진 ‘IMF세대’, ‘촛불세대’, 광장 문화와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청년세대 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강조한 ‘P세대’, ‘IP세대’가 해당한다.

‘IMF세대’, ‘촛불세대’는 명확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명명된 세대 호칭이다.

‘IMF세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기관인 IMF의 호칭을 따서 세대 용어로 명명한 호칭이다. 이 용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가 아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등장했는데 IMF 무렵 학창 시절을 보낸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시기에 여전히 외환위기의 여파가 계속되고 그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직의 고통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위기의 원인인 IMF를 세대 용어로 명명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나타난 ‘촛불세대’도 거대한 사회적 사건의 이름을 따 세대 용어로 명명된 호칭이다. 원래 ‘촛불세대’는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치여 희생된 여중생들의 추모를 위해 시작된 촛불집회에 참여한 젊은 세대를 뜻하는 의미로 처음 호명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청년세대를 ‘촛불세대’로 지칭한 시기는 2008년이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10~20대들이 새로운 집회 문화를 주도하면서 한국 사회의 거대한 사회변동의 주체로 떠올랐고 평화적인 사회운동의 상징적 도구인 촛불을 따서 ‘촛불세대’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반면 ‘P세대’와 ‘IP세대’는 세대 호칭 자체로만 보면 ‘실제세대’적 맥락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P세대’와 ‘IP세대’는 ‘X세대’나 ‘MZ세대’처럼 축약된 알파벳 약자를 사용한다. 이 세대 호칭들은 청년들의 가치, 행위 양식과 같은 문화적 측면을 부각한 수식어들의 영단어 앞 철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용어만으로는 동일 ‘세대위치’ 위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한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흐름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세대 호칭들의 출현 배경에는 명확한 역사 사회적 사건이 존재한다. 이 용어들은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월드컵 응원이나,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같이 주로 광장에서 나타난 청년세대의 새로운 집합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직접적으로 역사적 사건이 세대 호칭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동일한 사회 현상을 함께 경험한 일군의 연령 집단을 명명한다는 점에서 ‘실제세대’적 맥락을 갖는다. ‘P세대’, ‘IP세대’와 유사하게 ‘N세대’도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변화한

사고방식이나 문화적 특성으로 대략의 연령대를 범주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경험이라는 ‘실제세대’적 구성 요소가 없고, ‘세대단위’로 분화될만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 유형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종합해보면 ‘IMF세대’는 1997년 외환위기를, ‘P세대’는 2002년 월드컵과 효순·미선 촛불 추모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광장 문화를, ‘촛불세대’와 ‘IP세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계기로 발현된 세대에 이름 붙여진 용어들이다. 따라서 사회적 사건으로 호명된 ‘IMF세대’나 ‘촛불세대’나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발현된 청년들의 문화적 특징을 강조한 ‘P세대’, ‘IP세대’ 모두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세대로 집단화될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을 전제로 하는 ‘실제세대형’ 세대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3. 세대단위형 세대 호칭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 중 청년들의 계층적 조건에 따라 세분된 세대 호칭은 ‘세대단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는 ‘88만원세대’, ‘삼포(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N포세대’, ‘달관세대’가 포함된다. ‘P세대’나 ‘IP세대’처럼 이 세대 호칭들도 용어 어디에도 사회적 사고나 역사적 사건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 호칭들의 의미와 출현 배경을 되짚어보면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의 심화와 빈부격차 속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청년들이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88만원세대’는 2000년대에 저성장과 취업난으로 비정규직, 계약직과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특정한 생애사적 환경에서 비롯된 호칭이다. 『88만원세대』의 저자들에 따르면 ‘88만원세대’는 1979년에서 1989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체제 속에서 성장하면서 승자독식 체제에 익숙해져 있고 학업과 ‘스펙’ 쌓기에 골몰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경향을 지녔다.

‘삼포(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N포세대’는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포기해야 하는 요소들이 늘어나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호칭이다. 연애,

결혼, 출산과 같은 성인기 이행의 과정들과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에 이어 꿈도 희망도 포기한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지출이 발생하는 대인 관계를 최소화하고 혼자 끼니를 때우며 주어진 수입 내에서 빠듯하게 살아간다. 눈앞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나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달관세대’는 가질 수 없는 것을 두고 아예 꿈조차 꾸지 않고 달관하는 청년들을 뜻하는 용어이다. ‘달관세대’는 장기 불황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오늘날의 일본 청년들을 일컫는 ‘사토리 세대’를 조선일보가 직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세대 용어이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유사하게 한국의 ‘달관세대’는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욕망을 바라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애초에 과도한 삶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3포, 5포, 7포, N포세대가 가지는 세대 용어의 의미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달관 세대는 사회에 대한 기대도 없을뿐더러 불만도 없다.

‘88만원세대’, ‘삼포(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N포세대’, ‘달관세대’는 IMF 외환위기를 공통적으로 경험한 실제세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호칭들은 실제 세대로서의 청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세대 호칭으로 불리는 청년들은 동일한 세대위치와 동일한 실제세대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계층적으로 지위가 낮은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분명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세대위치’가 존재하고, ‘실제세대’ 내에서도 특정한 집단만 가지는 가치의 지향, 문화적 특징과 같은 고유의 특성인 ‘엔텔레기’ 또는 ‘세대 스타일’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비슷한 출생 시기라는 세대위치와 IMF 이후의 한국 사회의 구조 변동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들은 하나의 세대단위로 응집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이 공유된다. 특히 이 같은 세대 호칭들은 IMF세대라는 실제세대적 범주 내에서 계층적으로 구획되는 세대단위로서의 특징을 공유하게 된다.

V. 결론

2000년대 이후 청년세대에 대한 호칭은 복잡할 정도로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다양하게 등장한 청년세대 호칭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종합하고, 이를 만하임의 세대 개념을 토대로 분류해 보았다. 출생 시기를 기반으로 한 인구 통계적 세대 호칭인 '에코(boom)세대'와 '2차에코(boom)세대'와 전 지구적으로 통용되는 세대 호칭인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밀레니얼세대(=M세대)'는 '세대위치형'으로 분류했고, 사회구조 기반의 세대 호칭 중 사회적 사건을 따서 명명된 '촛불세대', 'IMF세대'와 문화적 특징을 유래로 한 'P세대', 'IP세대' 등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등장 배경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대 호칭들은 '실제세대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88만원세대', '삼포(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N포세대', '달관세대'와 같은 계층적 상황에 따라 세분되는 사회구조 기반의 세대 호칭들은 고유의 세대 스타일을 포함하는 '세대단위형'으로 유형화했다.

〈표 3〉 2000년대 청년세대 호칭 유형

세대유형	세대 호칭	구분 기준	
세대위치형	에코(boom) 세대, 2차 에코(boom) 세대.	출생 시기 기반 세대 호칭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밀레니얼세대(=M세대)		
실제세대형	촛불세대, IMF세대	사회구조 기반 세대 호칭	사회적 사건
	P세대, IP세대,		문화적 특징
세대단위형	88만원세대, 삼포(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N포세대, 달관세대		계층적 상황

지난 20여 년 동안 청년세대를 정의하는 주요한 시각은 취업난과 실업, 불안정한 노동 형태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관점이었다. 물론 'P세대'나 'IP세대'처럼 역동적이며 진취적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회변동을 주

도하는 핵심 계층으로 명명한 청년세대 호칭도 있었고 또 '세월호세대'나 '촛불세대'처럼 오늘날 청년들이 경험한 커다란 사회적 사건에서 비롯된 신조어도 있었으나 2000년 이후 대부분 청년의 세대 호칭은 '88만원세대',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코로나세대'와 같이 대체로 청년들이 성인기에 진입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의 경제 상황과 처지에서 유래되었다.

물론 '88만원세대'라는 호명이 20대를 단순히 숫자로 치환한 상징이라는 비판도 있고 '88만원세대'나 '3포세대'가 젊은 세대의 '객관적'인 경제 상황을 과장함으로써 이들을 특정한 정치적 주체로 호명한 담론이었다는 의견도 있다(김선기, 2019). 또 이러한 세대 호칭과 그로 인해 촉발된 청년 담론이 중산층 가정의 대졸 청년의 취업과 소득 보전을 위한 목적에서 소환된 것이란 인식도 있다(정수남, 김정환, 2017). 그렇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청년세대를 호명해온 호칭은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름의 상징성을 가진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던 호칭들을 종합해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 연구는 청년세대 호칭을 통해 청년들의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각자 따로 떨어져 논의되는 청년세대 호칭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세대가 사회 전부를 설명할 수 없고 하나의 세대 호칭이 집단 모두를 대표할 수 없으나 이 연구를 통해 2000년대 청년들이 시기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 청년들을 지칭하는 세대 호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작업은 오늘날의 청년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9월 29일 접수
2023년 6월 20일 수정 완료
2022년 10월 11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고명지. 2020. “청년세대 문화와 경계 짓기: 청년세대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8(2):207-271.
- 구혜란·구서정. 2019. “우울한 청년, 불안한 장년의 나라: 연결망 접근을 통해 본 세대별 마음의 형상(形象),” 「한국 사회학」. 53(2):253-292.
- 김석호 외. 2019. “한국인의 꿈-자본과 가족관계의 질: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1(2):1-57.
- 김선기. 2014. “세대 연구를 다시 생각한다.: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207-248.
- _____. 2017. “청년-하기를 이론화하기 : 세대 수행성과 세대 연구의 재구성,” 「문화와 사회」. 25:161-210.
- _____. 2019. 『청년팔이 사회』. 오월의 봄.
- 김지경. 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한국 사회 정책」. 25(3):209-245.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 사회학」. 49(1): 179-212.
- 구자순. 1995. “신세대와 문화 갈등,” 「사회이론」. 14(4):211-237.
- 민영·노성중. 2013. “가치, 참여, 인터넷 이용,” 「한국언론학보」 57(2):5-32.
- 박경숙. 2003. “세대 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 사회학」. 37(2):61-94.
- 박길성·조대엽·함인희. 2005. 「현대 한국인의 세대 경험과 문화」 집문당
- 박재홍.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사회학」. 29, 651-683
- _____. 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 사회학」. 33(2):257-296.
- _____. 2001. “세대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 인구학」. 24(2):47-78.
- _____.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학」. 37(3):1-23.

- _____. 2005. 「한국의 세대 문제 :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나남.
- _____. 2009. “세대 호칭과 세대 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10-34.
- _____. 2010.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권력·이념·문화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 33(3):75-99.
- 방하남·김기현. 2001. “기회와 불평등: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 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 사회학」. 36(4):193-222.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35-60.
- 신진욱. 2020. “세대 불평등 담론의 정치적 계보와 의미론 : ‘386’ 담론의 구조와 변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1990~2019년,” 「경제와 사회」, 126:407-442.
- 심광현. 2010. “세대의 정치학과 한국 현대사의 재해석,” 「문화과학」. 62:17-71.
- 오찬호. 2010. “88만원세대를 읽어내는 딜레마 : 세대‘내’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 「문화과학」. 63:107-123.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레디앙미디어
- 이광석·윤자형. 2018.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 「언론과 사회」. 26(2):77-127.
- 이기훈. 2014.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 이재경. 2018. “세대 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 모색 : 한국의 렌트(추구)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8:18-48.
- 이철승. 2019. “세대, 계급, 위계 : 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한국 사회학」. 53(1):1-48.
- 이철승·정준호. 2020. “세대·계급·위계 II: 기업 내 베이비부머/386세대의 높은 점유율은 비정규직 확대, 청년 고용 축소를 초래하는가?,” 「한국 사회학」. 54(2):1-58.
- 이현우 외. 2016. 「표심의 역습」. 책담.
- 전상진. 2002. “세대 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세대 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

- 인구학」. 25(2):193-230.
- _____.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 연구의 빈곤,” 「한국 사회학」. 38(5):31~52.
- 전영수. 2013. 『이케아 세대』. 중앙북스.
- 정민우·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 사회」, 89:105-145.
- 정성조. 2019. “청년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12-39.
- 정성호. 2003. “N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의의,” 「인문 과학 연구」. 11:389-413.
- 정수남·김정환. 2017. “잠재적 청년 실업자들의 방향과 계급적 실천.” 「문화와 사회」. 23:195-264
- 정진민. 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 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6(1):145-167.
- 조대엽. 2002. “한국의 사회 운동 세대, 386.” 계간 「사상」. 가을호.
- _____. 2003. “세대의 정치사회학: 2030과 5060.” 「관훈저널」. 봄호.
- 최샛별. 2018.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
- 최지영·천희주·이명진. 2015. “한국 사회의 세대별 시민성 비교 연구,” 「한국 인구학」. 38(4):113-137.
- 홍덕률. 2003. “한국 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64:151-191.
- 황아란. 2009.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한국과 국제정치」 25(3):191-217.
- Bengtson. Vern L., N. E. Cutler, D. J. Mangen & V. W. Marshall. 1985. “Generations, Cohorts,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pp.304-338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VNR.
- Braungart, Richard G. (1974). “The Sociology of Generations and Student Politics.” *Journal of Social Issue* 30(2): 31-54.
- Dilthey, W. 1875. *Gesammelte Schriften*. Bd. V. Stuttgart/Goettingen.
- Don Tapscott, 1997.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McGraw~Hill.

Douglas Coupland. 1991. *Generation X: Tales for an Accelerated Culture*. St.Martin's Press.

Edmunds. June. and Bryan S. Turner. 2002. *Generations. culture and society*. Open University.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Jaeger. Hans. 1985. "Generations in History: Reflections on a Controversial Concept." *History and Theory* 243: 273-292.

Kertzer. Davi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Mannheim.K. 1929. *Das Problem der Generationen*. 이남석 역. 2013. 「세대 문제」. 책세상.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The Generation Concept of Korea in the 2000s and Types of The Young Generation Names

Jeong Na Ri, Cho Dae Yop
Sun Woo Jae ,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neration names that have named the young generation in Korean society in the 2000s, paying attention to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 on generation names in generation research. This study gathered terms according to the time of appearance to find out how the young generation's names changed, and classified types using Mannheim's generation concepts such as "generation location", "generation as actuality", and "generation unit" to understand the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generation nam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youth generation in the 2000s was divided into more diverse "generation as actuality" and "generation unit" within the same "generation loc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generation and was called in various ways. Demographic generation names and globally used generation names were classified as "generation location type" and generation names with clear backgrounds in relation to Korea's social structure, such as social event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as "generation as actuality type". In addition to that the social structure-based generation names related to the hierarchical situation were classified as a "generation unit type". This typolog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and classifies various and confusing generation concepts in Korean society in the 2000s according to the meaning of each concept. Such typology can be a blueprint for more systematic generation research, although it is a general classification.

Key Words: Young generation, generation names, generation location, generation as actuality, generation unit, Mannheim

사회 현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 그로테스크 예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문조*

요약

르네상스시대 이후 예술적 흐름의 하나로 지각된 그로테스크는 최근 예술계를 넘어선 일반 사회에서도 통념이나 관례를 벗어난 엽기적 행동으로 발현하고 있다. 벌난 행위들은 어느 시대나 상존해 왔다. 하지만 혁신이나 변혁이 시대적 소임으로 회자되는 오늘날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의 표징이자 탈주 의식의 발로로 여겨지는 기행들이 '그로테스크 사회'로의 행보를 부추기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이론을 원용해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분석틀을 정립한 후,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가는 그로테스크 사회 현상의 기원, 특성 및 결과를 '먹방'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또 다니엘 스포에리의 '이트 아트' 및 칠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영화 <티탄>을 사례로 사회적 그로테스크와 예술적 그로테스크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해 그로테스크의 행로와 효과를 탐지한다. 사회미학 및 실천예술론적 관점에 의거한 비교연구 결과, 그로테스크 예술은 공감을 통해 사회적 그로테스크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상시적으로 발휘하나,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는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각성을 통한 예술적 그로테스크로 환생함으로써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주제어: 그로테스크, 사회적, 엽기, 공감, 각성, 먹방, 이트 아트, 티탄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45908)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muncho@korea.ac.kr)

I. 서론

그로테스크 미학의 시원은 고대 동굴 벽화나 조형물들로 소급된다.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비너스 조각상(Venus von Willendorf)이나 약 4만 년 전의 산물로 추정되는 독일 호렌슈타인 슈테델 동굴의 상아 조각상 사자인(Löwenmensch)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Witcombe, 2022; Ulmer Museum. 2013). 하지만 풍요와 다산 등 생존과 번성에 대한 염원을 특이하게 형상화한 선사시대의 토tem, 조형물 및 동굴 벽화 등은 여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Insoll, 2017).

이러한 고고학적 유흔에도 불구하고, 15세기 말 이탈리아에 등장한 기이한 형태의 장식미술이 그로테스크 예술의 계보학적 기원으로 꼽힌다. 당시 로마 황제 티투스 목욕탕 지하통로에서 폭군 네로의 황금 궁전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소재지가 땅 밑 동굴(grotto)이기에 동굴풍이라는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명칭으로 예술사에 등재되었다(OED, 2022). 중세 기독교 시대에 억눌린 욕구를 반영한 그로테스크 장식물들은 석굴이나 외진 곳에 자리한 경우가 많았지만 시일이 지나며 차츰 트인 공간으로 진출하였고, 장르도 미술, 건축, 정원과 같은 시각예술로부터 문학 및 연극·무용·음악과 같은 공연예술, 나아가 사진이나 영화 같은 영상예술로 범역을 넓혀왔다. 즉, 르네상스 이후부터 예술적 흐름의 하나로 지각되기 시작한 그로테스크는 주류적 사조에 도전하는 예술적 표현양식으로 매너리즘, 바로크, 낭만주의, 상징주의, 다다, 초현실주의와 같은 새로운 문예사조의 등장기마다 구태에 도전하는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독자적 입지를 강화해 왔다(카이저, 2019).

그로테스크 예술은 ‘숭고’를 추구해 온 주류적 예술 활동에 대한 전복적 입장에서 기존 예술의 한계를 초극하고자 하는 창조적 시도로서, 위반·월경·금지 파괴 등을 통해 참신한 예술작품이나 문예 양식을 생성하려는 예술 활동을 추구한다. 그런데 예술계에서 출원한 그로테스크 상상력은 사회미학적 공감을 통해 사회 도처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변혁적 열망을 분기하는 데 전용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개방성·다양성·복잡성·역동성을 더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현실의 고답적 질곡을 타파하는 혁신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요즘 예술계를 넘어선 일반 사회에서 통념이나 관례를 거스르는 그로테스크한 행태가 증가일로에 있다. ‘기행(奇行)’으로 통칭되는 비상궤적 행위들은 어느 시대나 상존했다. 하지만 혁신이나 변혁이 시대적 소임으로 회자되는 오늘날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의 표징이자 탈주 의식의 발로로 여겨지는 기행들이 ‘그로테스크 사회’로의 행보를 부추기고 있다. ‘폐인,’ ‘별레,’ ‘변태’와 같은 혐오성 용어, 혹은 막춤, 극한 스포츠, 자살폭탄 테러 같은 극단적 행태 등이 본보기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한 후,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가는 그로테스크한 행태의 기원, 특성 및 파장을 ‘떡방’ 사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니엘 스포에리의 ‘Eat Art’ 및 질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영화 <티탄>을 사례로 사회적 그로테스크와 예술적 그로테스크의 속성을 비교분석해 그로테스크의 행로와 효과를 탐지해 보고자 한다.

II. 그로테스크, 예술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기피하면서도 엿보고 싶은 추(醜)는 미(美)보다 다양하다는 기호학자 에코(Eco, 2008)의 주장처럼, 그로테스크 예술은 뒤섞인 것, 어긋난 것, 복잡한 것, 상반된 것, 웃기는 것, 불편한 것, 저속한 것, 공포스러운 것 등 다채로운 면모를 지녀 일률적 규정이 용이치 않다. 그럼에도 다양한 속성을 함유한 그로테스크예술은 내용 면으로는 기괴(奇怪, uncanny), 기능적으로는 전복(顛覆, subversion)이라는 개념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고 본다(김문조, 2021). 그에 반해 ‘엽기(獵奇, bizarre)’라는 용어로 대변할 만한 사회적 형태로서의 그로테스크는 총괄적 성격 규정이 용이치 않은데, 이러한 차이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예술적 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사회적 공간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인간 활동을 그것이

수행되는 공간적 특성과의 관련성 하에서 탐구하려는 장(場)이론을 원용해, 사회 세계에서 그로테스크 현상을 예술세계의 그것과 대비시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분석적 개념으로서의 장

시장, 극장, 운동장 등에 널리 쓰여 온 서술적 용어로서의 '장'을 분석적 개념으로 전용한 학자는 개인의 행위 동기에 관심을 지녔던 사회심리학자 레빈(Kurt Lewin)이다. 개인의 행동을 그가 처한 상황과의 연관성 하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레빈은 생활공간(life space)이라는 심리학적 장에서 작동하는 힘들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기능적 요소로 구성된 레빈의 생활공간은 심리적 존재로서의 개인 및 개인이 지각하는 대상이나 사상(事象)들로 이루어진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되기에, 의식적 체험으로서의 행위는 개인과 환경의 함수, 즉 $B=f(P,E)$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Levin, 1951).

장이론 개발 과정에서 레빈은 당시 성행하던 고전물리학의 역학이론, 특히 벡터 개념에 크게 의존해 시각화에 성공을 거두었는데, 모레노(Moreno, 1951)와 그의 후계자들은 장이론을 집단 내 인간 상호작용 유형을 연구하는 소시오그램이나 소시오메트리로 발전시켜 사회관계 연구나 정신치료, 교육 및 사회극(sociodrama)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심리학적 장이론의 '사회학화(sociologization)'는 대우주로서의 사회가 자체의 특수한 논리와 역사에 뿌리박은 가변적인 속성들과 공통된 불변의 속성들을 겸비한 소우주로서의 분화된 장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 2002)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장은 객관적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설정될 수 있다는 명목론적 입장을 견지한 부르디외는 사회를 개인이나 집단의 무질서한 집합체나 특정 형태로 배열된 집적물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는 여러 장들이 중첩적으로 혼재하는 다차원 공간으로 인식한다. 거기서 개별 행위자는 장 특유의 아비투스(habitus)를

습득하면서 특정 형태의 자본을 쌓아나가게 되는데, 이 때 특정 장이 자율적 일수록 외부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져 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장의 특성과 부합되는 행위 전략을 구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부르디외, 2002).

2. 사회장과 예술장

부르디외의 장이론에 의거해 사회적 그로테스크와 예술적 그로테스크의 차이와 관계를 논할 경우, 예술작품의 창작과 감상을 주축으로 하는 예술장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플랫폼인 사회장 참여자들이 각기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느냐를 밝히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사회를 하나의 총체로 인식하려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피에르 부르디외가 상이한 형태의 자본과 직결된 소세계로 제시한 개념이 ‘장(champ)’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와 논문에서 경제장, 권력장, 학술풀장, 예술장, 교육장, 과학장, 문화장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거나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여러 개의 장들로 구성된 사회체계 전체를 하나의 장으로 논급하지는 않았다(Bourdieu, 1991). 본 논문에서는 소정의 자율성을 행사하는 개별적 장들을 망라한 총괄적 개념(generic concept)으로서의 사회장을 설정해 그것과 예술장과의 관계 하에서 그로테스크 사회 현상에 관한 분석에 임하고자 한다. 이 때 그러한 시도가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대한 부르디외의 부정적 입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르디외 자신이 특수성과 고유성을 지닌 각개 장들 간에는 공통성이 내재하므로 일반이론으로 정식화할 수 있는 ‘장의 일반법칙’을 탐구하고자 노력했다는 기록이 있고, 방법론적 원칙이 준행되는 한 사회세계 전반에 대한 장이론의 적용이 적실하다는 견해가 요즘 활발히 제기되기도 한다(이상길, 2001; Hilgers and Mangez, 2015) 이러한 점들이 분석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장의 의의와 활용성을 뒷받침한다.

예술장을 특성화하는 예술 활동의 양상은 장르별로 달리 나타난다. 그렇지만 “예술은 인지적 근거나 도덕적 의무와 구분되는 심미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

어야 한다”는 칸트(Kant, 2009)의 지적처럼, 문학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예술은 궁극적으로 미(美)의 추구를 공통적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심미적 변경의 확장”은 예술장에 부여된 기본 과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면 사회장을 특징짓는 사회 활동은 예술 활동보다 관할 영역이나 유형이 훨씬 넓고 다채롭다.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손익을 앞세우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타산보다 전통, 정서, 가치 등을 중시하는 것들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표를 포함한 사회장은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예술장에 비해 혼재적·이질적·분쟁적이다. 이러한 속성들을 함유한 사회장에는 혼돈과 오인, 대립과 갈등, 억압과 반발이 상존한다. 따라서 그들을 제어하기 위한 통제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장은 권력장의 면모를 취하게 된다. 물론 예술장에서도 명성, 인기, 지위 등에 의한 영향력 격차나 권력 행사가 적지 않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적 성취에 대한 인정에 수반된 현상이기에 지배적 권력은 예술장의 본원적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그로테스크의 정치성(politics of grotesque)이 예술 세계보다 사회 세계에서 보다 문제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술장과 사회장의 또 다른 차이는 창작, 시현, 감상의 처소인 전자가 현시적(顯示的) 목적을 위한 표현의 무대인 반면, 후자는 만남과 소통과 교류라는 교제적(交際的) 행위가 진행되는 삶의 터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심미적 목표를 향한 정신적 활동이 주축을 이루는 예술장은 표출적 공간,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이 교차하는 사회장은 보편적 생활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전자는 기본적으로 예술적 상상력이 주도하는 상상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구체적 사회활동의 현장인 현실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예술적 상상력과 대비되는 사회 활동은 개인의 생존, 성취, 번영을 위한 일련의 시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현존 규범이나 질서의 수용이나 위반 여부와 결부된 정치성 논제와 맞닿게 된다.

3. 예술적 표상과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

예술장과 사회장에서 파생하는 그로테스크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식별되

는가? 낡은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해보려는 도전과 전복이라는 기본 속성에 관한 한 예술적 그로테스크와 사회적 그로테스크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단, 표현적 공간인 예술장에 귀속된 ‘예술적 표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Artistic Representation of Grotesque, ARG)는 심미적 기대지평의 제고를 통한 “반(反)미학의 미학화(aesthetization of the unaesthetic)”의 소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일련의 교제적 행위로 구성된 사회장에서 돌출하는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Social Representation of Grotesque, SRG)는 규범적 경계의 허파를 통해 “비(非)정상의 정상화(normalization of the abnormal)를 도모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현존하는 심미적 계율의 초극을 통한 APG의 생성은 독창성·실험성·참신성 같은 자질을 필요로 한다. 반면 기존 질서(status quo)의 아성에 도전하는 SRG에서는 주체성·과단성·혁신성과 같은 자질이 중시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ARG와 SRG 모두는 도전과 전복이라는 정명을 공유하되, 전자는 심미적 영토의 확장이라는 보탬과 포섭의 논리를 견지할 것인 반면, 규범적 경계의 재편을 목표로 하는 후자는 궁극적으로 바꿈과 변혁의 논리를 지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즉, ARG를 생성하는 예술장은 외연과 포섭을 주축으로 한 비(非)영합적(non-zero-sum) 경연장이요, SRG의 산실인 사회장은 배제와 축출이 불가피한 영합적(zero-sum) 각축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그로테스크의 예술적 표상 vs. 사회적 표상

구분	그로테스크의 예술적 표상 (ARG)	그로테스크의 사회적 표상 (SRG)
거소	예술장(藝術場)	사회장(社會場)
목표	반(反)미학의 미학화	비(非)정상의 정상화
과정	심미적 기대지평의 제고	규범적 경계의 타파
요건	독창성, 실험성, 참신성	주체성, 과단성, 혁신성
지향	외연, 확장	폐질, 축출
논리	보탬, 포섭의 논리	바꿈, 변혁의 논리
속성	비영합적(非零合的)	영합적(零合的)

ARG의 대표적 인물을 장르별로 두세 명씩 소개하자면, 미술의 경우 비대칭적 데칼코마니 화풍의 르네 마그리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및 초미주의의 개척자 백남준, 음악계 인물로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나 레이디가가, 연극은 부조리극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나 프리드리히 뒤렌마트, 문학은 <변신>의 프란츠 카프카, <백년동안의 고독>의 가브리엘 마르케스 및 <모래 사나이>의 E.T.A 호프만, 건축은 구엘 공원 설계자 안토니 가우디나 해체주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SRG의 대표적 사례를 영역별로 하나씩 거론하자면, 의식주 기초생활 영역에서는 키덜트, 충식(蟲食), 노숙, 그리고 성, 결혼, 여가활동, 생체, 세상과 직결된 것으로는 LGBTQ, 즐혼, 명때리기, 사이보그,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Ⅲ. 그로테스크의 사회적 발현: ‘먹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장의 실질적 장소가 사회현실이고, 사회현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일상생활이라면,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가장 원초적 활동은 ‘먹기’ 즉 식음(食飮)이라고 할 수 있다. ‘먹고 산다’는 통속적 표현으로 짐작할 수 있듯, 먹는 행위는 본원적으로 생존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그러나 먹거리, 요리, 식품 안전, 식기, 맛집 등에 대중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황은 식음에 대한 가치확장(valorization)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크게 완화된 오늘날에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행하는 먹방 열풍은 좋은 음식, 우아한 식사에 대한 관심에 역행하는 엽기의 전형에 속한다.

사실상 요리나 음식을 주제로 한 과거의 대부분 예술작품들은 기예, 열정, 풍요, 정교, 우아 등과 같은 긍정적 가치와 연동된 ‘숭고’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겨진다. 예컨대, 장인적 열정과 집념으로 요리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식신(食神)>, 혹은 신앙생활에 전념하던 마을 주민들을 맛과 멋의 세계로 인도하는 <바베트의 만찬>과 같은 영상물을 통해 식음을 찬미

하는 '식미화(食美化)' 경향을 판독할 수 있다. <줄리 앤 줄리아>라는 근자의 영화 역시 그러한 사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나, 요즘 노베르트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을 거스르는 이색적 식사나 요리가 미술 작품이나 영상물 등에서 활발히 표출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 중에도 '경박단소(輕薄短小)' 하는 현대적 정향을 비웃는 듯 엄청난 양의 음식을 우악스럽게 먹어치우는 먹방이 우리 일상계에서 풍미하는 그로테스크 사회 현상의 현대적 전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집중적 분석부터 진행하고자 한다.

먹방은 별 다른 내용 없이 인터넷 방송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도전형, 미식형 및 소통형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음식, 먹기 힘든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나 괴식, 접해보지 못한 음식 등 어떤 음식이든 포식하는 도전형 먹방이 주류를 이룬다. 질, 맛, 멋 어는 것 하나 따지지 않고 "마구 먹어대는 것"이 먹방의 핵심인 것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먹방의 진풍경

이 같은 무모한 행태가 근자에 붐을 이루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다. 방송계 사람들은 먹방 열풍은 그것이 최초로 등장한 아프리카TV의 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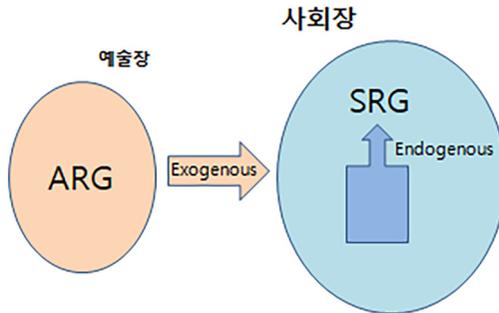
영상 방송 단속이 강화된 시기에 새로운 흥행거리를 찾는 틈새시장이 형성된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논자들은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외부 식당들이 집단적 고객을 선호해 집에서 혼자 밥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 가는데, 혼밥을 하면서도 남들과 수다 떨며 식사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먹방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혜인, 2020). ‘Mukbang’이라는 고유 영어단어로 등재된 한국사회의 먹방을 특징으로 다룬 CNN도 그것을 온라인 시대의 회식(social eating)으로 풀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스마트폰 인프라를 먹방을 부추기는 요소로 덧붙인다(CNN, 2014). 그러나 사람들을 혼자만의 공간에서 맘껏 먹어대는 먹방으로 끌어들이는 보다 본원적 요인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기민하게 처신해야 하는 각축 사회에 대한 반발에 있다고 본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먹방 열풍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가 적시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존재의 가벼움으로 대체하는 사회적 슬림화 경향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IV.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두 원천

먹방에 대한 높은 열기는 먹방 하나로 인기를 얻어 베스트 BJ(Broadcasting Jockey)가 되는 방송인이 적지 않다는 사실로 능히 입증된다. 그러나 남 앞에서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모습을 드러내는 먹방에서는 심미적 요소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은 한국, 미국, 영국의 먹방 대표들이 만나서 대결을 벌이면 영국의 먹방 대표가 이긴다는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LOL.MOUM.KR, 2013).

- 한국 대표: 뭐든지 맛있게
- 미국 대표: 뭐든지 멋있게
- 영국 대표: 뭐든지!

더구나 일부 먹방 크리에이터들은 후룩후룩 찹찹하면서 의도적으로 먹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먹방의 하이라이트라고 강변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아름다움의 추구를 애써 외면하는 엽기로서의 먹방은 그것이 예술장들과 무관한 SRG의 표본임을 주지시켜 준다. 그러나 SRG 중에는 예술가들의 전향적 통찰에 의해 생성된 ARG가 사회장으로 이동해 SRG로 재현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무척 많다. 위반, 횡단, 역행, 탈주, 초월과 같은 전복성을 특징으로 하되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예술 작품이나 활동들로부터 현실적 질곡의 혁파라는 변혁적 열망을 판독할 수 있는 SRG의 발현을 널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샤를 보들레르의 시 〈악의 꽃〉으로부터 ‘치절한 고통의 터전에서 피어나는 충만의 환희’를, 권터 그라스의 소설 〈양철북〉으로부터는 ‘정신적 억압에 의해 멈춰진 신체적 성장의 재개’를, 또 근자에 출시된 클로이 자오 감독의 영화 〈노매드랜드〉로부터는 ‘물리적 집(house)보다 소중한 마음의 집(home)의 온기’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발현은 다음 두 가지 경로, 하나는 먹방 경우처럼 사회장 내부의 원천으로부터 생성되는 내인적 경로(endogenous path), 다른 하나는 위에 언급한 작품들 같이 예술장에서 태동한 ARG가 사회장으로 유입되어 SRG로 재탄생하는 외인적 경로(exogenous path)로 대별할 수 있으리라 본다(〈그림 2〉 참조).



〈그림 2〉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양대 원천

V. 예술적 그로테스크의 사회적 전환: 사회미학적 해석

SRG의 내적 발현은 규범적 경계(normative boundary)를 벗어난 일탈 행위(deviant behavior)로 이해할 수 있다. 일탈 행위에 관해서는 사회학 책자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ARG에서 SRG로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설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미의 추구가 예술의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임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미학은 바로 그에 대한 적실한 접근법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사회미학이라고 하면, 미적 추구가 개인의 정신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밀폐적 활동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나 생활환경과의 관련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 과정임을 시사한 실용주의 철학자 듀이(Dewey, 2003)를 일차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저작에서 “예술에 관한 미적 희열의 경험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 달성을 위한 외부환경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충족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술세계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사회와의 심미적 연관성을 일찍이 간파한 인물이다.

이러한 통찰은 후속 학자들의 연구물들 - 예컨대, 나치 정부의 시적 메타포에 열광하는 우중(愚衆)의 횡포를 묘사한 카네티(Carnetti, 2010)의 「군중과 권력」 혹은 세상살이란 개인이 사회 활동의 장에서 타자가 인정 하거나 권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연기에 다름없다는 연극학적 사회론을 제시한 고프만(Goffman, 2016)의 「일상생활에서의 자아 표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논지에는 ‘사회생활에서의 미학의 재발견(rediscovery of aesthetics in social life)’을 통해 미학 논의를 예술철학적 담론에서 사회문화적 담론으로 확장하자는 의지가 깃들여 있다. 근자에 콜린스(Collins, 2009)도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라는 저서에서 “미학의 대상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성과는 물론이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현상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사회미학적 입장에 동조한 바 있다. 또 “시적·예술적 심성이 사회와 정치, 역사를 향해 동심원적 파장을

일으키며 퍼져나가고 이런 파장이 보다 이성적인 사회질서의 가능성을 궁구하는 데로 외연되어야 한다”는 김우창(1992) 교수의 ‘심미적 이성론’도 사회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ARG → SRG 전환 과정에 대한 최초의 명쾌한 해설은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1759년도 저작 「도덕경제론」에서 발견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라는 동감(sympathy)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동일하다고 주장한 스미스(Adam Smith)는 ‘행위의 미(behavior of action)’를 지향하는 도덕이 현실세계에서 행사하는 도덕적 가치가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이 목표로 하는 심미적 가치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Smith, 2009). 한편, 1872년 미학자 피셔(Robert Vischer, 1994)는 관찰자가 흥미하거나 관조하는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감정이입 기법을 ‘Einfühlung’으로 규정하였는데, 1909년 영국 심리학자 티치너(Titchener)가 그것을 ‘공감(empathy)’으로 번역한 후부터 공감은 예술품을 감상하고 즐기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리프킨, 2010).

국내에서 사회미학적 공감의 힘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노래 〈아침 이슬〉이다. 미대 재학생 김민기가 작곡한 ‘아침이슬’은 도·미·솔이 주 화음인 다 장조 노래인데도 첫 음이 파로 시작하고, 도입·전개 파트를 후렴 이후에 다시 쓰지 않고 다른 노래로 이어지는 듯한 마무리로 구성도 사뭇 생경하며, 노랫말 역시 애절하거나 달콤한 사연 혹은 시사적 메시지마저 없어 주제감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작곡가 자신은 이 곡을 요즘 말하는 ‘개념 가요’로 여긴 적이 없는데, 공연장은 물론 시위 현장에서 즐겨 불리다가 1987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노래에서 100만 명이 ‘아침이슬’을 함께 부르는 광경을 보고 ‘이건 더 이상 내 노래가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김태훈, 2021; 한현우, 2021). 요컨대, 당시로서는 다소 특이했던 70년대 초 팝송 하나가 1975년 유신 정부의 긴급조치에 의해 금지곡이 된 것을 계기로 지위나 소속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국민가요’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세계에서도 구태의 탈피를 내세우는 그로테스크 미학의 소구력이 날로 배가하고 있는데, 그로테스크 사회미학의 사회적 친연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범주로 나누어 성격과 사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그로테스크 사회 현상의 범주별 현황

범주	성격	사례
사유	상황 논리를 내세운 변심이 오히려 ‘유연한 사고’로 용인되거나 권장되는 현상	이직, 이민, 역이민 등
언표	혼성적 축약어, 혹은 욕설이나 기피어의 일상화	“내로남불,” “변태,” “귀태(귀절으로 태어난 아이)” 등
행동	대중적 관심을 겨냥한 모순적 기행들	노이즈 마케팅, 익스트림 스포츠, 험지 관광 등

VI.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예술적 전환: 두 가지 사례의 대비

1. 유보적 사례: 다니엘 스포에리의 ‘Eat Art’

누보 레알리스트 화가이자 작가인 다니엘 스포에리(Daniel Spoerri)는 먹방이라는 SRG 사례의 화두에 해당하는 먹기(eating)를 예술적 소재로 삼은 ‘Eat Art’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 많은 예술적 소재 중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인간의 기저적 욕구에 해당하는 식욕을 충족시키는 먹기를 작품 소재로 선정한 발상 자체가 이색적이지만, 평범한 삶의 일부를 덮에 걸린 물건들처럼 한 장면으로 싸잡아 포착하는 덮그림(snare-picture) 기법으로 인간의 먹는 행위와 관련된 일상의 순간을 차입(appropriation)해 제시하고자 한 그의 작업 방식도 특기할 만하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구로서, 인간이 음식을 소비한 흔적은 그러한

본원적 욕망을 충족한 징표임을 강조하는 스포에리는 먹기를 주제로 한 첫 작품 <키슈카의 아침식사>에서 여자친구가 식사한 후 남긴 지저분한 접시들과 커피 물컵, 커피 잔, 빈 깡통, 은그릇, 담배꽂초 등을 나무의자가 부착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대로 고정시킨 후 이를 벽에 걸어 동결된 순간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을 제작했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림에 나타난 흔적을 통해 그녀의 포만감을 전해 느낄 수 있는 것이다(이윤정, 2006). 스포에리는 1860년부터 'Eat Art' 연작을 통해서도 일상적 소비생활을 향도하는 현대인의 음식문화에 내재한 식욕의 몰입적 성향을 작품화한 바 있다 (<그림 3, 4> 참조).



<그림 3> '키슈카의 아침 식사' <그림 4> D. Spoerri의 'Eat Art' 연작 일부

한편 베르사이유 부근 풀밭에서 40m 가량 되는 식탁에 20개가 넘는 요리를 준비한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부제가 붙여진 <뒤틀린 매장>이란 해프닝에서는 식사를 끝낸 후 풀밭에 구덩이를 파고 식탁을 묻은 후 식사하기 전 상태의 풀밭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급변하는 현대적 일상 속에서 생에 대한 욕구의 전형인 식욕이 매몰되는 광경을 재현하여 성대한 만찬의 덧없음을 주지시키기도 했다(Spoerri et al., 2016). 그러나 소재의 참신성, 기법의 독창성 및 센세이셔널한 대중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스포에리가 요즘 성행하는 탐식 행위의 엽기적 속성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로테스크 상상력이 사회적 심실에서 예술적 심실로 이행한 족적이 스포에리의 Eat Art 작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혹자는 스포에리의 작품들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그로테스크풍 만찬이나 향연을 찬양한 예술 작품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작가 프랑수아 라블레(François Rabelais)의 문학 작품은 능히 그 고전적 전형으로 꼽힌다. 1532년 작품 <팡타그뤼엘>에 나오는 동명의 주인공은 태어나자 4,600마리 암소의 젖을 다 빨아 마시고, 암소의 다리 한 쪽을 소시지처럼 꿀꺽 삼켜버리는 기괴한 식욕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대식(大食)의 절정은 2년 후 출간된 <가르강튀아>의 다음과 같은 대목, “도살한 살찐 소의 내장을 과식하여 직장이 탈장을 일으키는 지경”이라는 대목이 나온다(라블레, 2017). 이처럼 먹히는 배를 먹어치우는 배와 연결지우는 라블레의 탐식(貪食)에 관한 묘사를 놓고 문호 빅토르 위고는 “머나먼 저 별들에까지 도달할 만큼 우리 영혼의 심연을 채워주는 해학”이라고 극찬한 바 있는데(디오니소스, 2019: 137), 그러한 평가는 무엇보다 동물과 사람의 경계선이 와해되어 육신이 합류하는 사육제에서 구태를 벗어나려는 탈주적 열망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반짝하는 먹방이라는 폭식(暴食)의 난장에서는 그러한 해탈적 효과를 좀처럼 지각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

2. 성공적 사례: 질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영화 <티탄>

바디 호러의 대가로 주목받는 질리아 뒤쿠르노(Julia Ducournau) 감독의 영화 <티탄>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뇌에 티타늄을 이식한 알렉시아와 범죄 담당 형사 뱁상의 기묘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현존하는 금속 중 가장 합금성이 뛰어나다는 티탄을 뇌에 이식한 사이보그로 사람 아닌 자동차에 성적 반응을 느끼는 알렉시아(〈그림 5〉 참조). 영화는 자동차 전시장의 쇼걸로 일하는 그녀가 비정한 살인마로 돌변하는 장면으로부터 본격화한다.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알렉시아는 실종 진단 속 소년과 닮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10년째 아들을 찾던 소년의 아버지 뱁상과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정의를 추종하고 남성성에 집착하는 뱁상은

알렉시아와 가장 함께하기 힘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망을 피하려는 알렉시아와 만나 사랑에 빠져들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던 뱀상은 급기야 알렉시아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자동차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아기를 출산하는 그녀의 곁을 지킨다. 금속성 빛이 드러나는 알렉시아의 육체에서 양수 대신 검은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합성적 뇌가 아니라 금속성 척추를 지닌 기이한 모습의 아이가 태어난다. 자연분만을 통한 사이보그 포스트휴먼2.0의 탄생을 알리는 충격적 장면인 것이다(〈그림 6〉 참조).



〈그림 5〉 인간과 사물의 교감



〈그림 6〉 포스트휴먼 2세대의 탄생

영화 <티탄>은 개봉 직후부터 엄청난 화제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충격스럽기 짝이 없는 엽기적 행각들을 과감히 작품화한 뒤쿠르노 감독은 황금종려상 시상대 앞에서 “괴물성은 규범이라는 벽을 밀어내는 무기이자 힘이다. 괴물을 받아들여 준 칸영화제에 감사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는 예술적 그로테스크의 재림을 고하는 축문(祝文)으로, 거기에는 정의와 불의, 남성과 여성, 인간과 사물 등 모든 경계가 내파되어 가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 관한 묵시록이 깃들여 있다.

지난날의 인류 역사는 미분화 상태에 놓여있던 활동이나 지식이 분화나 전문화 과정을 거쳐 잘게 나뉘어져 온 ‘분화의 시대’로 일괄할 수 있다. 하지만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수천 년 간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온 분화의 힘이 융합적 힘으로 대체되는 새로운 추세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융합적 전회(convergent turn)’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이원적 분류체계로 입력·전환·

축적·처리·산출하는 디지털 기술력에 기인한 바 크다. 시각이나 청각 등 이종(異種)의 감각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해 수용·관리·송출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접속적 기능이 통신기술과 접목되어 미디어 세계의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융합 효과가 경제·정치·사회·문화·의식 부문으로 파급됨으로써 경제체제, 권력구조, 사회관계, 생활양식 및 정신세계가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융합문명의 시대가 창개하고 있다(김문조, 2013).

가볍고 견고하며 내식성이 강하고 인체에 무해한 은백색 금속으로 물성치가 낮아 해 다른 재료와 쉽게 섞일 수 있는 티타늄(titanium)을 소재로 한 영화 <티탄>은 지난날의 장구한 분화 시대가 탈분화 융합 시대로 교체되어 가는 오늘날의 문명사적 전회를 인간과 금속, 넓혀 말하면 생명체와 사물의 융합체인 사이보그(cyborg)를 전면에 내세워 상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뛰어난 합금성으로 항공 우주재료로부터 안경테, 골프채 헤드, 테니스 라켓, 시계 같은 일상용품은 물론 인공관절이나 뼈 같은 생체 금속으로도 널리 쓰이기에 티타늄은 영화 <아이언 맨>, <앤티맨>, <록맨 시리즈> 등과 같은 영상물의 소재로 등장해 왔지만, <티탄>은 사이보그의 존재나 활약을 일회성 사건으로 종결짓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재현의 드라마를 창출함으로써 관객을 ‘초미적(超美的) 미학’이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예술적 진경으로 인도한다.

VII.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예술적 전환: 실천예술론적 해석

상상력은 창조성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 활동의 정신적 원천으로, 그 점은 그로테스크 예술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아득한 선사 시절까지 올려 잡을 수 있는 그로테스크 상상력은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계 전면(前面)으로 진출해 탐미적 욕구를 고취하며 그로테스크를 예술사조의 하나로 착근시켰다. 그에 반해,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상상력은 자체적 힘으로는 결코 그로테스크의 유지존속이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엽기적인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지속적 발현은 그것이 아름다움의 추구를 본령으로 하는 예술의 힘과 결부될 때 확보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지속가능성은 예술적 그로테스크와의 관련성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곧 현존 SRG도 그 전력(前歷)에 따라 명운을 달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즉, 맥방과 같은 내인성 SRG는 심미적 요소를 갖춘 그로테스크 예술로 전환될 소지가 희박하지만, ARG의 세레 하에 성장한 외인성 SRG는 예술 작품으로 재현될 공산이 크다. 그로테스크의 재현 가능성은 그것이 처녀생식인지 아니면 수정생식인지의 여부로 판명되고 말 사항이 아니라, 그로테스크 상상력의 이동 경력, 요컨대 그로테스크 상상력이 예술장과 사회장을 넘나든 전력에 있는가 여부와 직결된 것임을 함의한다.

1. 정적 환류로서의 각성

그로테스크 예술장과 사회장을 오가는 그로테스크 상상력의 행정(行程)에 있어, 예술적 그로테스크가 사회적 그로테스크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점은 앞서 명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영화 <티탄>의 경우에서와 같이, 엽기라는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를 예술적 그로테스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시 산책자로서 19세기 초 파리 아케이드 거리를 배회하며 산업자본주의 소비문화의 발흥을 몽타주 기법으로 기술한 문예이론가 벤야민(Benjamin, 2008)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아케이드 소비문화의 소용돌이로 휩쓸려가는 집단 의식의 회복을 위한 각성(awakening)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변혁 의지를 일깨우는 ‘정적 환류(positive feedback)’로서의 각성이 용속한 소비주의의 질곡을 벗어날 수 있는 핵심적 요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온갖 상품들이 즐비한 아케이드에서 물신화 되어가는 일상사를 변증법적 사유로 구출해야 한다는 그의 관념적 각성론은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의 생성적 욕망을 향도하는 예술, 혹은 랑시에르(Rancière)의 정치로서의 예술에 관한 논의에 의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갖추게 된다.

2. 실천예술론적 각성

실천예술론적 각성은 자본주의적 지배체제가 가치나 의미의 세계를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획일성·동질성에 대한 거부감을 실천으로 연결 짓고자 한 연구가들의 논지에서 명료히 드러난다. 그 단초는 자유란 억압적 권력관계로부터의 탈피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사려 깊은 윤리적 실천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는 푸코(Foucault, 2001)의 '실천적 자유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각성에 의해 사회장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굴절 효과(reflection effect)가 하위장(subfield)으로 전이되는 태환(conversion) 현상을 심미적 차원에 적용해 예술의 실천적 효능을 깨우쳐준 선도적 학자로는 들뢰즈와 가타리, 그리고 랑시에르를 꼽을 수 있다.

1) 들뢰즈와 가타리의 미학적 실천론

자본주의는 시장을 위한 생산이라는 거대한 공리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를 동형화·획일화시켜 새로운 재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 들뢰즈와 가타리(2001)는 '미학적 실천'으로 지칭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 정형화되어가는 재현의 세계를 초극할 수 있는 모색임을 역설한다. 미학적 실천 과정에서 그들이 강조하는 개념은 일반적 법칙이나 보편적 관념을 넘어 고유한 가치를 발하는 특이성(singularité)이다. 자본주의 체계는 모든 것을 생산성과 교환 가치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코드화하고 그러한 가치 체계에 벗어난 것들을 덧코드화해 자본주의 영토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이러한 코드화·영토화의 흐름은 통념의 주축에서 이탈함으로써 단절될 수 있는데, 탈주선의 설정은 체계 안에 잠복해 있는 특이성의 발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이성 생성 과정에서 들뢰즈와 가타리가 중시하는 것이 감각이다. 그들은 감각을 통념으로 점철된 기존 의미체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실천적 시도로 간주하면서, "지각하는 주체의 상태들로부터 지각을 떼어내

별도의 순수한 감각의 덩어리를 추려내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규정한다(들뢰즈·가타리, 1995). 새로운 감각의 집적으로서의 예술은 당대의 지배적 지각 체계를 탈영토화해 기존 질서의 재현을 거부하는 대안적 준거체계를 창출함으로써 모든 것을 공리계로 포섭시켜 획일화하려는 자본주의 미시 파시즘에 대항하는 실천적 역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양소연, 2021). 따라서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예술은 재현적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혁명성을 지닌다(Sauvagnargues, 2009). 과학이나 철학이 아닌 예술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명적 활동의 거소라는 점은 칸트의 비판서 주제를 연상케 하는 다음과 같은 그들의 견해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생성과 소멸이 무한반복되는 카오스로서의 세계 안에서 현실은 잠재적 카오스로부터 벗어난 실현체로 모습을 드러낸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이 때 과학은 무한을 포기한 채 잠재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 규명에 진력하고, 철학은 무한을 간직한 채 잠재태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변수의 발견에 주력하나, 예술은 카오스로부터 다양성들을 발굴해 “무한을 복원시키는 유한의 창조”에 진력한다는 것이다(들뢰즈·가타리, 1995). 유한의 구도 안에 무한의 미학적 다양성들을 발현토록 하는 작업이 예술이라는 그들의 예술관으로부터 예술 활동의 실천적 속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가타리는 이러한 미학적 노력이 미술,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과 같은 예술 영역을 넘어 생활세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구태를 반복하려는 재현의 체계를 혁파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실천예술적 확장을 위해 가타리는 “혼동(chaos)과 질서(cosmos)의 삼투(osmose)”를 뜻하는 ‘카오스모제(chaosmose)’라는 개념을 제시한다(가타리, 2003).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술적 실천은 권력 관계로 계열화된 기존의 미 작용이나 사회체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는 바, 이러한 실천예술적 각성을 통한 굴절 효과의 성공적 전이가 미학을 정치로 사유하고자 하는 랑시에르의 미학정치론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2) 랑시에르의 미학정치론

평등-불평등 문제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을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 대한 분배의 문제로 인식한 랑시에르는 정치의 본질이 민주적 합의나 정당화 기제를 핵심으로 하는 치안(police)보다 분배의 몫을 다투는 계쟁(litige)에 있다고 역설한다. 즉 법, 규율, 제도 같이 나눔을 규정하는 질서나 체계의 유지보다 그러한 체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눔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것에 정치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랑시에르의 정치관은 정치란 공동의 것에 대한 분배 감각에 있다는 주장을 통해 미학과 연결되는데, 이 때 그가 제시하는 개념이 “공동적인 것의 존재와 그 속에서 각자의 몫들과 지위들을 규정하는 경계 설정을 동시에 규정하는 감각적 명증성의 체계”라는 ‘감성의 분할(le partage du sensible)’이다. 예술은 기존 경계 설정의 분할선을 흐리게 하면서 각자의 몫을 다시 따져 묻는 계쟁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실천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랑시에르, 2008).

새로운 미적 가치의 발굴에 주력하는 예술을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혁명에 비견하는 랑시에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예술적 식별체제 - 이미지들의 윤리적 체제, 재현적 예술 체제 및 미학적 예술 체제 - 를 비교하면서 실천예술의 사회적 의의를 강조한다. 이들 중 랑시에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고유한 감각적 존재 방식’의 존재 여부에 따라 예술을 식별하는 미학적 예술 체제이다. 일상과 다른 ‘고유한 감각적 존재 방식’을 견지하는 예술은 그런 이유로 ‘자율성’을 획득하나, 동시에 일상 활동에 이질적이라는 견지에서 기존 체제에 위협을 가하면서 ‘정치적 재분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랑시에르가 중시한 미학적 예술 체제의 역사적 사례는 낭만주의로부터 시작된 모더니즘이다. 낭만주의적 모더니즘이 미학적 예술 체제에 부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미학의 고유한 특성인 ‘상반되는 것들의 동일성’ 위에 기초한다는 점에 있다. 예술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도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삶 속으로 침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다. 모더니즘의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는 프리드리히 폰 실러(Friedrich von Schiller)

의 ‘미적 상태’와 이를 받아들인 독일 낭만주의적 이상은, 우리가 미적 판단 속에서 오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감성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역사적 아방가르드와 마르크스주의 아방가르드로 20세기 초까지 명맥을 이어온 이 메타정치적 기획은 아쉽게도 성공에 이르지 못했으나,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을 통한 사회적 각성이 현존 질서를 변혁할 수 있는 소중한 예술적 자원임을 확신한다(랑시에르,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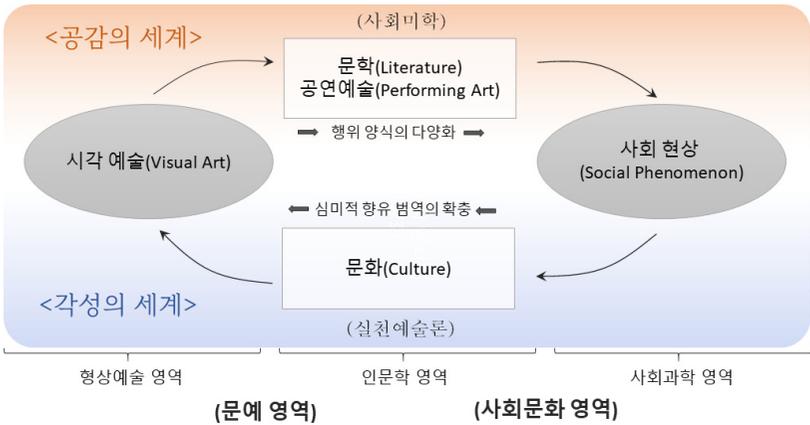
그의 미학정치론은 벤야민이 우려했던 ‘정치의 예술화’처럼 예술을 대중 선동의 방편으로 삼는다거나 작품을 통해 어떤 파당의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는 참여예술 같은 것이 아니다. ‘감성의 분할’에 따라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들의 존재 방식을 설정하면서 그러한 분할을 전복해 ‘감성의 재분할’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이고, 예술은 그러한 ‘감성의(재)분할’ 속에서 고유한 감각 양식의 ‘가시적 행동 양상’을 구조화하는 것이기에, 예술과 정치라는 양대 영역은 ‘감성의 분할’을 매개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 랑시에르 미학정치론의 핵심인 것이다.

VIII. 결론: 그로테스크 상상력의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물질대사, 짧게는 대사라고 번역되는 생물학적 용어 메타볼리즘(metabolism)은 생물 유기체가 주위 환경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을 흡수해 합성·분해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인코돔, 2022).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것이 대신 생기거나 들어서는 이 같은 지속적 절차를 통해 생명체가 활력적으로 존립하게 되는데, 사회적 그로테스크와 예술적 그로테스크 간의 관계도 그러한 메타볼리즘적 순환도식으로 이해될 직하다.

예술적 그로테스크의 사회적 전환, 요컨대 “심미적 감성의 사회화”라는 명제로 응축할 만한 사회미학적 경로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공감

이라는 점을 앞서 몇몇 학자들의 논거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대비되는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예술적 전환인 “현실적 인식의 작품화” 과정에서는 각성이라는 예술가의 깨우침이 결정적 구실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감과 각성을 통한 예술적 그로테스크와 사회적 그로테스크 간의 선순환 구조 하에서 그로테스크 상상력이 생명력을 견지하면서 예술이나 사회 현상으로 재현하게 된다. 결론부에서 복잡한 도표를 제시하는 것이 관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들 양대 경로를 종합한 그로테스크 상상력의 메타볼리즘을 종합적으로 도시하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그로테스크 상상력의 메타볼리즘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발휘되는 뉴미디어 시대에는 공감을 통해 심미적 향유의 외연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ARG→SRG의 과정이 질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급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각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예술작품이나 예술 활동에 구현하고자 하는 SRG→ARG 과정의 경우는 온라인 미디어가 도구적 역할에 머무름으로써 주로 촉진적 기능의 보강에 그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서문에서 예술이란 삶을 재미있고 활기차게 하는 수단을 넘어선 고유한 목적을 지닌 것이기에 “모든 예술은 진정 쓸모가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어느 예술지상주의자들도 상투성 탈피를 위한 탐미적 노력이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임을 의심치 않는다. 심미적 변경 확장을 위한 예술적 표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가 공감이라는 확장자를 통해 형상에 술로부터 문학 및 공연예술을 거쳐 사회문화 영역 전반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하지만 도전이나 전복을 넘어 현존 질서에 대한 저항적 자세를 견지하는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그로테스크는 다양성·역동성·가변성·유연성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지배적 동향에 상응하는 사회 현상(social phenomenon)일는지 모르나,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 각성을 동반하지 않는 한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예컨대, 심미적 갈날이 먹혀들어가기 힘든 먹방 같은 엽기적 행위로부터는 경박단소(輕薄短小)를 지향하는 스마트 사회에 반하는 한시적 반짝 효과를 목격할 수 있을지언정, 시대 변화를 추동하는 향도적 역능을 기대할 수 없다. 스포에리가 예술장이라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영역에서 먹방 같은 엽기적 음식문화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본다. 그로테스크 예술은 자체적 존재 가치는 물론이요, 공감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사회적 그로테스크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지만, 엽기적 행태로서의 사회적 그로테스크는 각성이라는 정적 환류의 도움 없이는 그로테스크 예술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

그와 대조적으로, 영화 <티탄>은 정의/불의, 욕망/윤리, 삶/죽음, 인간/사물 등과 같은 제반 경계들이 함몰하는 정경을 통해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나 인류사회의 미래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외설이 아닌 예술로 추앙받는 것이라고 본다. <티탄>의 경우와 대비되는 먹방의 한정적 효과는 결코 식욕과 성욕의 차이로 환원시켜 이해될 수 없다. 먹는 문제도 미식학(gastrology) 같이 심미적 담론과 실행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공감과 각성을 통한 예술적 표상과 사회적 표상의

선순환 구조라고 여겨지는 바, 오역 시비가 있기는 하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Vita brevis est, ars longa)”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언명이 사회적 그로테스크의 효과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여실히 성립되는 듯하다.

2022년 9월 18일 접수
2023년 6월 23일 수정 완료
2022년 12월 14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가타리(Felix Guattari). 2003. 「카오스모제」. 윤수중 역. 동문선.
- 고프만(Erving Goffman). 2016. 「자아 연출의 사회학: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기하는가」. 진수미 역. 현암사.
- 그라스(Günter Grass), 1979. 「양철북」. 박환덕 역. 을유문화사.
- 김문조. 2013.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 _____. 2021. 「사회미학으로서의 그로테스크: 영화 <기생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4(2): 35-65.
- 김우창. 1992. 「심미적 이성의 탐구」. 솔.
- 김태훈. 2021. 「[만물상] ‘아침이슬’ 50년.」 (조선일보 2021. 6. 12).
- 김혜인. 2020. “한국인들이 떡방(mukbang)에 열광하는 이유는?” 「월간조선」 6월호.
- 듀이(John Dewey). 2003.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 역. 책세상.
- 들뢰즈·가타리(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99.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윤정임 역. 현대미학사.
- _____. 2001.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 디오니소스. 2019. 「시카고 플랜 위대한 고전: 삼류를 일류로 만든 인문학 프로젝트」. 민이언 외 편. 다반.
- 라블레(François Rabelais). 2017.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소민호 편역. 한국헤르만헤세.
-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 2008. 「감성의 분할」. 오윤성 역. 도서출판b.
- 리프킨(Jeremy Rifkin).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민음사.
- 벤야민(Walter Benjamin). 2008. 「도시의 산책자」. 조형준 역. 새물결.
-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974. 「악의 꽃」. 김봉구 역. 민음사.
-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정일준 역. 새물결.
- _____. 2002. 「과학의 사회적 사용」. 창비.
- 소바냐르그(Anne Sauvagnargues), 2009. 「들뢰즈와 예술」. 이정하 역. 열화당.

- 스미스(Adam Smith). 2009. 「도덕감정론」. 박세일·민경국 역. 비봉출판사.
- 양소연. 2022. 「포스트디지털과 미학적 실천론: 도시 예술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 에코(Umberto Eco). 2008. 「추의 역사」. 오숙은 역. 열린책들.
- 와일드(Oscar Wilde). 2010.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윤희기 역. 열린책들.
- 이윤정. 2006. “다니엘 스포에리(Daniel Spoerri)의 ‘이트 아트(Eat Art)’에 나타난 일상성의 미학.” 『미술사학보』 26: 237-262.
- 인코돔. 2022. “Metabolic Pathway.” <https://www.incodom.kr/sp.home>. Retrieved 2022-09-11.
- 카네티(Elias Carnetti). 2010. 「균중과 권력」. 강두식 역. 바다출판사.
- 카이저(Wolfgang Kayser). 2019.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지혜 역. 아모르문디.
- 칸트(Immanuel Kant). 2009. 「판단력 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 콜린스(Randall Collins). 2009.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진수미 역. 한울아카데미.
- 푸코(Michel Foucault). 2003.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
- 한현우. 2021. “‘아침이슬’ 50주년… 김민기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2021. 06. 02).
- CNN. 2014. “South Korea’s online trend: Paying to watch a pretty girl eat.” <https://edition.cnn.com/2014/01/29/world/asia/korea-eating-room>. Retrieved 2022-09-11.
- Foucault, Michel. 2001. *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 Routledge Classics.
- Hilgers, Mathieu and Eric Mangez, 2015, “Introduction to Pierre Bourdieu’s Theory of Social Field.” In M. Hilgers and E. Mangez(eds.). *Bourdieu’s Theory of Social Fields: Concepts and Applications*. Routledge: 1-35.

- Insoll, T. (Ed.), 2017. *The Oxford Handbook of Prehistoric Figurines*.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 Kurt.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Harper.
- LOL.MOUM.KR. 2013. “한국 미국 영국 대표먹방.” http://lol.moum.kr/bbs/board.php?bo_table=drip&wr_id=40821&sst=wr_good&sod=desc&sop=and&page=2008. Retrieved 2022-09-11.
- Moreno, J. L. 1951. *Sociometry, Experimental Method and the Science of Society: An Approach to a New Political Orientation*. Beacon House.
- OED(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2. “Grotesque.” Etymonline.com. Retrieved 2022-09-11.
- Spoerri, D. et al. 2016. *Daniel Spoerri: Eat Art in Transformation, Paperback*. Silvana Editoriale.
- Ulmer Museum (Hrsg.). 2013. *Die Rückkehr des Löwenmenschen. Geschichte - Mythos - Magie*. Ausstellungskatalog Ulmer Museum.
- Vischer, R. 1994. “On the Optical Sense of Form: A Contribution to Aesthetics.” In H. F. Mallgrave and E. Ikonomou(eds. and trans.). *Empathy, Form, and Space. Problems in German Aesthetics, 1873-1893*. Getty Center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89-123.
- Witcombe, C. 2022. *Venus of Willendorf: Art History & Image Studies — Essay 1*. <http://arthistoryresources.net/willendorf/willendorfdiscovery.html>. Retrieved 2022-09-11.

〈영상 자료〉

- 줄리아 뒤쿠르노(Julia Ducournau) 감독의 영화 〈티탄(Titane)〉. 2021.
- 가브리엘 악셀(Gabriel Axel) 감독의 영화 〈바베트의 만찬(Babette's Feast)〉.

1987.

노라 에프런 감독의 영화 〈줄리 & 줄리아(Julie & Julia)〉. 2009.

클로이 자오(Chloé Zhao) 감독의 영화 〈노매드랜드(Nomadland)〉. 2020.

주성치(周星馳)·이력지(李力持) 공동감독 영화 〈식신(食神)〉. 1996.

Grotesque as Social Phenomena: Focusing on the Connection with the Grotesque Arts

Muncho Kim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Abstract

Since the Renaissance, Grotesque,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artistic trends, has recently emerged as a bizarre behavior that defies conventions or customs of a society beyond the world of arts. Unusual acts have existed at any time. However, today, when innovation or transformation is called upon as a mission of the times, the acts that are considered a sign of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order and a sign of a sense of escape are encouraging the move to a “grotesque society.” Depending on Pierre Bourdieu’s field theory, this article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enhance understanding of grotesque as social phenomena, and discusses the origin,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of grotesque social phenomena that are spreading in our society, focusing on the case of “Mukbang(eating show).” It also detects the path and effect of the grotesqu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roperties of social grotesque and artistic grotesque in light of the cases of Daniel Spoerri’s ‘Eat Art’ and Julia Ducournau’s film ‘Titane.’ From this comparative case study based on the social aesthetics and practical arts approach, it is turned out that grotesque art is always open to extend to social grotesque via the power of empathy, while grotesque as a social representation cannot maintain its vitality without the artistic representation of grotesque by way of critical awakening of the existing order.

Key Words: Grotesque, Social, Bizarre, Empathy, Awakening, Mukbang, Eat Art, Titane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의 연구력과 연구 네트워크*

이윤정**

요약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은 연구자로서의 자긍심과 부담감, 새로운 연구에 대한 고민, 지속적으로 연구를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구자가 되기 위하여 고민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 박사과정생들에게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은 연구력과의 연관되어 있으며, 연구력 강화를 위한 기본은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 과정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논문연구' 학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박사과정생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이들이 '독립 연구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사과정생의 독립 연구자 인정과 지원은 과정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사회적으로는 연구자의 저변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연구자 간 학문 공동체인 '연구 네트워크'는 지적인 자각과 정서적인 인정으로 연구력과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구 네트워크는 연구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 원천이며, 연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뿌리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누지 않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플랫폼 형성이 요구된다. 특히, 플랫폼 연결은 수도권으로 편중된 학문 네트워크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인문사회과학, 박사과정생, 연구력, 연구자 정체성, 연구 생태계, 글쓰기, 네트워크, 플랫폼, 초점집단인터뷰(FGI)

* 이 연구는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연구총서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중 「5장. 연구력과 네트워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한림대학교 사학과 강사, yunjeong99@naver.com

I. 들어가며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성격유형 검사는 아마도 MBTI일 것이다. MBTI는 외향(E)-내향(I) 지표, 감각(S)-직관(N) 지표 등 4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하여 모두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나누어 자신이 어느 성격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검사이다. MBTI 검사를 해보는 것은 모두가 하나까, 아니면 재미로 또는 여유 시간이 있어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닌가 한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에 신중하게 답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다.¹⁾ “자신의 직업을 연구자로 소개한 적이 있나요?”라는 문항이었다(67문항). 이 질문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이 스스로를 연구자로 생각하는지 묻는 것으로, 연구자로서 정체성에 대한 자문이었다.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연구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문사회과학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현상, 사상, 철학 등을 탐구하는 영역이기에, 여타 학문 분야보다 자신만의 시각과 연구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가령,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후속 연구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 자신의 연구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연구자로서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연구의 목표와 방향이 뚜렷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으며, 생명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자신이 어떤

1) 김인수, 박민철, 송경호, 이대성, 이윤정, 이민기. 2022.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본 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중 박사과정생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1차례 실시하였다. 모두 96명이 9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 및 분석은 보고서 '3. 질문지 조사의 개괄과 조사자료 분석'에 자세히 나와 있다(65~75).

연구자인지 대한 정체성 확립은 곧 연구력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력’의 사전적 의미가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적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능력’이라는 점에서도,²⁾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겠다. 인문학 분야의 기초연구인력에 대한 조사,³⁾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⁴⁾ 비정규직 교수들의 연구안전망에 대한⁵⁾ 언급은 있었다.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자 정체성이나 연구력에 대한 연구성과는 보기 어렵다. 이것은 연구력에 대한 연구성과의 대부분이 이공계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⁶⁾ 연구력을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것에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로서 정체성과 연구력 중 무엇이 먼저라고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연구력도 하루아침에 정립되지 않는다. 아마도 수많은 고민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연구력도 함께 생기게 될 것이다.

연구력 있는 연구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도교수를 비롯하여 대학원의 선후배,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기도 한다. 대학원 사회나 학회, 세미나 등 연구자들의 다양한 모임을 ‘연구 네트워크’ 또는 ‘연구자 네트워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2) 김인수 외. 2022. 위의 글 : 18.

3) 진일상. 2009. “인문학 분야 기초연구인력 양성현황 및 질적 제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이정미·김은영·이길재·임소현·장덕호·한경희. 2013.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5) 배성인. 2019.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들의 연구안전망을 위한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경제와 사회』 121.

6) 의과대학 연구력 향상과 대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안한 글로는 울산과학대학(2003)의 “의학전공자의 국내외 진출 및 연구력 실태 조사 연구”와 김인숙, 양은배(2015)의 “의과대학 연구력 향상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인식 및 연구 활성화 요인” 등이 있다. 이외 정충기(2008)는 ‘우리나라 토목공학 연구력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 토목기술 연구력 증가와 연구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하경자(2016)는 기상학 분야의 연구력 발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글을 기획하였다.

연구자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하게 된다. 연구자가 속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같이 성장하지만,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나 정체되면 고립감을 느끼며 연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 네트워크’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연구력을 키워가는 환경 즉, 학문 생태계를 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로서 정체성과 연구에 대한 고민, 어떤 연구자가 될 것인지, 연구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하면 좋은지 등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아마도 박사과정일 것이다. 이 글은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들이 박사 논문이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 연구력 있는 연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서⁷⁾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연구력, 연구 네트워크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전달하겠다. 이를 통하여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력과 지속적인 연구

1. 연구자 정체성

앞서 언급한 연구자 정체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 67번째 문항 “자신의 직업을 연구자로 소개한 적이 있나요?”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질문에 전체

7) ‘심층 인터뷰(FGI)’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초청하여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2년 5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모두 29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김인수 외, 2022 : 75~95).

82명의 응답자 중 53.66%에 해당하는 44명이 ‘예’라고 답하였다. 이렇게 답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문항 68), ‘대학원생이면 연구자죠!’라는 것과 ‘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구자 아닌가요?’고 답한 것이 각각 9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이 ‘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고 있으니까요.’가 17명으로 3번째로 답하였다. 반대로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은 모두 38명(46.34%)이었다. 연계된 질문에 “연구자라고 소개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문항 69)라는 항목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요.’라고 한 사람이 17명, ‘연구자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연구자’라는 이름이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당연한 직함이라면,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의 표현이라는 응답도 있었지만, 부담과 거리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층 인터뷰(이하 FGI)’에서도 결과는 비슷하였다. 한 과정생은 “연구자라는 어휘는 일종의 자기 명령이면서 자부심의 근원 같은 어휘로 쓰인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거리낌 없이 연구자다 라는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라고 하였다(F2B38). 박사과정생으로 스스로를 연구자로 생각하고, 연구자는 연구를 해야 하는 사람이며 연구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연구라는 게 어쨌든 실적 생산과 결부되 있어서 저는 제 스스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상당히 좀 유예해왔고 약간 거부하고 피하는 것도 조금 있었거든요.”라고 하였다(F10J1). 이는 연구자가 가지는 무게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작업이 되게 재밌는 작업이고 내가 있는 학계라는 곳이 되게 재밌는 곳이구나 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부담은 느끼지만, 연구라는 작업 자체와 자신이 속한 학문 분야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연구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정체성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한다.

8) 연구총서에서 일괄적으로 부여한 FGI 번호를 그대로 쓰겠다.

그리고 “우수한 연구자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문항 90)라는 질문에 37명이 ‘새로운 연구를 계속 고민하는 연구자’라고 응답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5.12%). 다음으로 ‘연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있는 연구자’가 26명(31.71%), ‘다른 연구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에 6명(7.32%)이 답하였다. 이어지는 설문에 “훌륭한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91문항)에는 전체 과반이 넘는 44명이 ‘연구 계획 수립 능력’(53.66%)을 꼽았고, ‘자료 수집 및 평가 능력’이 27명(32.93%), ‘방법론 역량’이 8명(9.76%), ‘네트워킹 능력’ 3명(3.66%)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연구자상이나 훌륭한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을 새로운 연구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를 글로 옮길 수 있게 기획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구자로 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연구에 대한 요구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와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FGI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좋은 연구,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자.

- Ⓐ **좋은 연구**라는 게 진짜 아까 제가 했던, 고민들, 그러니까 **이런 나만의 관심사 혹은 나만의 주제를 어떻게 타인에게 이해시키고 또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항상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F7G2)
- Ⓑ **좋은 연구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지속 가능하게 자기의 문제의식을 어쨌든 현실의 요구에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계속 그 연구를 묵직하게 해나갈 수 있는 연구자**가 현재 단계에서는 되게 좋은 연구자인 것 같아요.(F10J2)

Ⓐ와 Ⓑ에서 두 연구자 모두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가지고

그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는 연구자를 좋은 연구자, 우수한 연구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타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나 FGI에서 던졌던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질문을 바꾸어 보면,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자문이 되지 않을까 한다. 즉, 자신이 되고 싶은 연구자의 모습을 투영한 대답이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대답인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하여 과정생들은 자신의 연구 지향점이 무엇인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지,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있다.

연구자라는 명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연구에 대한 자긍심과 부담감, 좋은 연구자가 되고 싶은 마음, 고민 등을 오가면서 연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를 것인지 고민하면서, 때로는 과정 자체를 즐기며, 같은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

2. 연구력의 기본, 글쓰기

연구력을 기르고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글로 지속적인 성과물을 내야 한다. ‘글쓰기’는 연구의 기본인 동시에 연구력을 탄탄히 만드는 단단한 토대와도 같다. ‘글쓰기’에 대해 류인태(2022)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적 행위가 아니라 자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가치와 담론에 관한 소통 행위”이며, “읽고 쓰는 문화는 곧 가치와 담론으로 표방되는 사회적 생각의 토대이며, 그러한 사회적 생각을 이끌어가는 가시적 매개로서 인문학자들이 읽고 쓴 글은 해당 사회의 지적 수준과 사회적 문제에 관한 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글쓰기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소통 행위이며 사회의식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글쓰기가 중요하지만 이 모두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이나 FGI에서도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정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논문 쓰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논문을 써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인데. 물론 제가 스스로 해야 되고 학생 입장에서 스스로 찾아보고 계속 습득하고 체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죠. 제가 익숙해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략)…… 어떤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논문을 읽는 방법을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단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강의를 듣고 이런 논문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논문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그게 심지어 제가 석사에 들어가고 3학기쯤인데 그런 수업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그 수업에서도 딱 2주 정도만 그런 수업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논문 쓰기라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다루는 제도권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비제도권적 도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어려워요. …… (논문작성과 관련하여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 지도 교수님이나 다른 선배나 동거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저의 연구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좀 고독한 작업이 될 때도 있어요. 좀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가장 좀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런 점에서 조금 제도권에서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글쓰기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수업이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F2B1)

석사과정은 논문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박사과정에 오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석사과정에서 논문 읽기와 글쓰기를 박사과정에서 새롭게 익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위의 박사과정생의 경우는 석사과정 3학기 차에 비로소 논문 읽는 법과 쓰는 법에 대하여 알게 되어서 기쁨도 느꼈지만, 동시에 글쓰기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석사·박사과정 모두에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학점으로 규정해 놓았다. ‘논문연구’ 학점이 그것인데, 이 학점은 지도교수와 일대일로 논문에 대하여 주고받은 내용으로 학점이 부여된다. 중요한 ‘논문연구’ 학점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① 저희도 분위기는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서 투고를 하든 그거는 상관
이 없는 분위기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논문을 써서 교수님한테 이메일
일을 보내거나 해서 보낸 적은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지도를
받거나 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는 아니
고 수료하기 전 학기, 두 학기 전에는 논문연구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래도 **논문연구 수업에서는 한 학기마다 소논문을 하나씩 써야 되
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매번 제가 논문작성 과정 초고를 다 올리는데
도 피드백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
움이 남습니다.(F9I3)
- ② 지금 대학원 **논문연구**라고 그런 과목이 있었고, 과정 중에는 두 개?
세 개? 아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도 1학점짜리인데 **해
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해야 되는 것도 없고, 하시는 것도 없고,
약간 카르텔이랄까...** 학생들도 그냥 신청해 놓고 매일 한 번 보낼까
말까, 선생님하고 밥이랑 한 번 먹고, 이러는 것 같고...(F10J1)

‘논문연구’는 대학원 과정 중에 졸업을 위해서 꼭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다.
그러나 ①과 ②에서 두 과정생 모두는 ‘논문연구’ 학점은 있지만, 실제 학점이
논문연구나 논문을 쓰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부분 형식적인 것으로 여겨 실제로 논문을 쓰는데 활용하는 경우는 적다
는 것이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과정생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구책을 낸 학과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
도 같이 들어보자.

저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지도를 제도로 대체**한다고 했던 게 학생
들하고 교수 사이에 관계가 좀 소홀하고 잘 만나는 기회가 없고 한다는
불만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조금 공유가 되다 보니까 뭘 만들
어냈냐면 학과에서, 특히 이제 후 수료 후에 애들이 정말 관리가 안 되
니까 **수료 후 지도 내역** 이런 거를 학기마다 제출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동안에 수료생이 교수와 만나서 어떤 것을 했는지, 뭘

지도를 받았는지를 ‘학생이’ 써내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대략적으로 적어놔서 그때는 뭘 해서 어디에서 뭘 했다. 이런 거를 적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심지어 어떤 생각 그런,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도를 여전히 새로운 제도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이게 뭔가...(F10J1)

‘지도를 제도로 대체한다’는 말은 ‘논문연구’라는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과정생들의 불만이 있었고, 특히 수료한 과정생들은 지도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을 낸 것이다. 그래서 수료생도 지도교수와 만나 지도를 받고 그 내용을 쓰도록 한 것인데, 그 내용을 지도교수가 아닌 ‘학생’이 쓰도록 하였다. 지도의 책임을 수료생에게 넘기고 있다는 생각과 자구책을 마련했음에도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도교수의 지도 부재는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에는,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같은 인문사회 분야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리하여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도교수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외국 대학원 과정에서는 글쓰기와 논문지도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한 과정생은 외국 시스템에 대하여 “비교적 외국 대학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지도교수와든 아니면 어쨌든 계속 평가하고 그걸 모델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F2B3)라고 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과정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

미국에는 ‘라이팅 센터’라든가 아니면 글을 이렇게 썼을 때 봐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확고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교수랑 제자 일대일 관계만으로 글을 봐주는 게 아니라, 박사과정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조교로 달라붙어서... 아무래도 더 연차가 적은 학생들의 그런 글을 다 봐주고, 토론 같은 것도 다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또 ‘라이팅 센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이팅 센터’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은 전공 분야가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세요. 문학이라든가 영문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언어 계열을 하신 분들이 ‘라이팅 센터’에 상주해 계시면서 어떤 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진짜로 글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캐치를 해주시는 것은 확실히 좀 많이 발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 국내의 시스템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물론 학교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석사 과정 내내 이렇게 쪽 모든 커뮤니티가 달라붙어서 이 사람의 글쓰기의 능력을 높여 준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요.(F7G2)

위의 이야기를 통하여 미국의 ‘라이팅 센터’에서 과정생들의 글쓰기 지도와 토론까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체크하고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연구에 대한 고민과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한국 대학원에서 부재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외국의 글쓰기 시스템에 대하여 “E 대학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연결하여 글쓰기를 가르쳐주고 장학금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대학원에도 확대 적용하여 석사와 박사를 매칭한다든지, 비전일제 선생님들과 연결하여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고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인문사회과학에서 글쓰기는 연구의 기본이며, 연구력과도 직접 연결된다. 연구의 방향과 목적 등을 고민해야 하는 박사과정들에게 글쓰기가 걸림돌이

된다면, 대학원 과정의 기본 시스템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원의 가장 큰 목표는 교수, 학교 모두 최고 학위인 박사를 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사 배출 자체에만 의미를 두었던 것은 아닌지, 어떤 박사를, 어떤 연구자를 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사 과정생에게 박사 논문의 높은 완성도는 연구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논문의 완성도에 대하여 지도교수나 여타 교수들,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글쓰기를 비롯하여 논문지도와 논문연구 등 시스템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 연구력의 다른 이름 : 연구 원동력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동시에, 자문하는 것 중 하나가 '인문사회 연구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이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가 학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항상 고민한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특성상 연구서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단시간에 사회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고민은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늘 하게 되는데, 허심탄회하지만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과정생이 있어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저는 서양 중세 철학을 하다 보니, 연구 계획서를 써내거나 할 때 사회에 기여하는 바 혹은 이걸 통해서 어떤 학술적인 발전이라든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연관 짓기가 진짜로 어려운 주제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루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 철학이 아니다 보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게 아니고 완전 중세 서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가에 대한 고립감을 굉장히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흥미 본위로 공부하는 것 이외에 연구자로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혹은 남들에게 나의 연구

의 정당성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인문학은 확실히 경제적으로는 많이 돈이 안 되고 양적 지표화 할 수 있는 게 현저히 적다보니까 어떤 평가를 딱 객관적으로 내리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학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인문학은 이게 정말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게 사회가 많이 발전이 된 거고 그만큼 한 사회의 사유가 굉장히 증진되어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또 중세 철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연구가 국내외로도 안 된 학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을 새롭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이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런 학자들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구 주제라든가 정말 들어보지 못한 학자라도 이제 공부를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게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F7G2)

위의 과정생 이야기대로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경제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글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양적으로 지표화할 수는 없지만, 인문사회과학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학문이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계속 나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회의 사유가 증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적을 남긴 인물에 대하여 연구하고 알리는 것도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많은 과정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학업을 이어가는 이유를 들어보겠다.

- (가) **박사를 후회하진 않는데 이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활이 지금 제가 과외 하나 하고 회사에서 일 하나 하고 조교장으로 일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수업 듣고 그렇게 하는데

이 생활이 절대 지속 가능한 생활도 아닐뿐더러 저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몸이 너무 아프다든가 그래서 이걸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를 시작한 걸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F2B1)

(나) (웃음) 저는 후회 한 적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도 하다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어느 사회나 기관은 권력 관계가 다 존재하긴 하지만 이곳에서는 권력 관계는 사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바깥에서 돈을 벌면서 본 권력과는 좀 다른 확실히 절대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사회적인 효용성이 이런 것들과도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괴로움이 있어요.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내 만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는 연구 작업이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른 길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져요. 주변에 학위를 딴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박사 학위를 따기 전까지는 이 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힘이 많이 들지만 일단 학위를 따고 나면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고, 생계적인 것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아진다. 네가 모르는 세상이 펼쳐질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길이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길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길을 가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에 기대서 가기도 하고요. 일단 고통스러운데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아무래도 문학은 지금 계신 분들보다는 저의 만족이나 기쁨에 더 기대고 있는 것 같더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역시나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있겠지라는 희망도 있습니다.(F5B1)

(다) 어떤 큰 동력이라기보다는 보조적으로 부스터를 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행연구들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은 아직 다루지 않고 계시네! 선배 연구자분들께서 그러한 어떤 논문감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제 스스로 배워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쌓인 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조금 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학술지에 게재가 됐을 때 굉장히 큰 동력이 되더라고요. 더더… 조금 더, 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좀 큰 동력이 돼요.(F7G1)

(㉠) 논문을 왜 쓰는가 이 논문을 쓰는가의 의미 같은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잘 얘기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류적인 학문이나 주류적인 주제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고, 그냥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제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완전히 비주류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되게 취약한 사람들이었고 누구도 잘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는 ‘이것을 어떤 논문이라는 글의 형태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자의식이라는 연구자로서의 자의식이나 책임의식 같은 것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쓰는 논문이라고 한다면.(F5E3)

(㉡) 선행연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빈틈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빈틈을 내가 잡은 주제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할 때. (웃음) 그게 가장 강력한 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너무 강력한 재미를 느낄 때가 있죠. 그게 어쨌든 임시적인, 반복되는 임시적인 답에는 매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F2B3)

(㉠)와 (㉡)의 이야기에서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의 녹록지 않은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자신의 연구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박사 과정에 진학한 것에는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인문사회과학이 사람과 사회에게 의미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 (㉡), (㉢)에서 과정생들은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자들의 글을 보면서 미처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연구 방향과 목적을

스스로 찾고 있다. 어쩌면 구름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막힌 공간 속에 조그마한 틈을 발견한 것과 같이 연구 소재를 발견하고 거기에 열중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문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기쁨과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경제와는 점점 멀어지는 현실에 비난 아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지금의 공부를 후회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요구보다 개인적인 만족이 더 클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있을까? 앞서 본 과정생(F7G2)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회를 다양하게 보는 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양한 사회현상이나 인물들에 대하여, 소외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삶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와 배경이 하나하나 모여 연구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여기에 경제적인 지원까지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박사과정생은 연구 사업에 있어서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드물게 독립 연구자로 인정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직접 들어 보겠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을 때 떠오른 것은 00사에서 청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박사과정 첫 학기에 처음 00에서 생긴 연구 지원 사업이었는데, 00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돼서, 이제 한 반년 동안 성과물을 내야 되지만, 반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그래도 독립 연구 작가 뭔가 연구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졌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하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마칠 때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면 많아져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느낌을 감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네!' 그리고 '나도 이런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롭고 그 어떻게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기가 엄청나게 되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끝날 때쯤에.(F5E2)

박사과정 중 ‘청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에 선정되었고, 이후 스스로 연구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느꼈던 뿌듯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다. 이 사업 경험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고, 책임의식과 자신감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조건을 두지 않는 학비,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과 ‘연구자생애 맞춤형 지원과 박사과정생에 대한 직접지원 체계로의 전환’ 등이 제시되었다.⁹⁾ 특히, 설문조사나 FGI에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에 대한 선호와 함께 제도 보완과 확대를 언급하였는데,¹⁰⁾ 2023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선정 과제가 2022년도 비하여 351건이 늘어난 2,150건으로 확대되었고, 지원비 또한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박사과정생이 보조연구자로 머무는 것은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학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사 학위 이상의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모든 연구 사업에 박사 학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보조적인 입장에 머물던 박사과정생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연구 사업 전체를 이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과정생도 독립 연구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이들에게도 연구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박사과정생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사회적으로는 연구자의 저변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박사과정생들을 연구 프로젝트

9) 김인수 외. 2022. 위의 글 : 157~159.

10) 김인수 외. 2022. 위의 글 : 70~71, 114.

에서 보조적인 자리에 둘 것이 아니라, 독립 연구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더 마련되었으면 한다.

III. 연구 네트워크의 의미

1. 연구 네트워크의 역할 : 연구력과 네트워크

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가 뭐라 해도 지도교수와 관계이다. 지도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지도교수와 관계 여부가 학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된 경우도 있지만, FGI에서 지도 방법을 묻는 질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방임’, ‘방치’였다. 흡사 초원을 방목케 하는 과정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의 연구 환경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씩씩하기도 하였다.

지도의 부재, 때로는 지도교수 부재, ‘지도를 제도로 대체’하는(F10J1) 시스템 속에서 연구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과정생들은 대학원 안의 선후배나, 학회 활동, 외부 활동 등으로 그 돌파구를 찾기도 하였다. 아래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제도적인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했을 때 그걸 커버했던 게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공부 공동체나 세미나 같은 이런 거 하다 보면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자생적인 문제의식이나 운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학교 바깥으로 진출을 하거나 거기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고...(F10J1)

대학원생들 간의 공부 모임을 ‘공동체’나 ‘커뮤니티’로 이칭하며 서로 공부한 것을 이야기 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의식과 생각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대학원 수업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습득하기 어렵기에, 수업 외에 공부 모임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된다. 이러한 학문 공동체 활성화는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위의 연구자는 유학 대신 국내 박사과정을 진학하게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를 손꼽았다.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다.

F대 사회학과가 괜찮았고 선배들의 분위기가 여기 또 뭔가 으샤으샤 하는 분위기도 있고, 같이 공부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어떤 문제의 식 같은 게 살아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막연한 느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저기에 속하고 싶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F10J1)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내 박사과정 진학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많은 과정생들이 학회 활동을 통해서 학문적 자극과 인적 교류를 이야기하였다. 비교적 학회 활동을 활발히 한 과정생에게 후배들에게 학회 활동을 추천할 것인 물었을 때 몇 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석사 후배가 생긴다면 저는 무조건 학회 활동을 추천해 주고 싶은 마음이지요”(F8H1)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연구력과 연구의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연구자가 받은 게 많으니까 나름대로 또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게 많다는 생각도 항상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뭔가 이렇게 업적들은 쌓였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연구력을 결정할 때 더 중요한 요소는 지도 현실에서 제가 경험한 걸로만 비춰봤을 때는 지도교수도 아닌 것 같고, 내 글을 읽어주고 평가해주는 학계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다 파편적으로 각자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거 존재를 잘 못 느끼

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박사과정 생활을 보내면서 가끔가다가 이 학문 공동체를 느끼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 심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글을 진짜 누가 그냥 초고 단계에서 읽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비평해 줄 수 있는 글 공동체... 그런 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꼭 그게 지도교수가 문장 단위로 고쳐주는 건 아니더라도, 대충 제가 하는 말을 얼추 알아듣고 막 큰 이야기라도 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5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되게 행복한 학자일 것 같아요. 그런 존재들을 대학원에서 그래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개인적인 복인 것 같고, 또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은 저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후배들이 그런 걸 요청하거나 그런다면 그래도 진짜 그냥 잘 모르는 분야라고 왜냐하면 지도교수들이 그런 걸 거의 안 하거든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기때문에 저도 그런 거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서 우리가 그런 대중들과 호흡보다도 어쨌든 우리 학계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게 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되게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인 것 같아서...(F10J2)

이 연구자는 학회 활동이나 학과 세미나 등 선배나 학문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받았던 유익한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앞서 학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다고 한 과정생(F8H1)과 같이, 학문 공동체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영향이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게 한다. 이는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과 원동력을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학회 활동이나 학내 활동 등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 교류를 하며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도 아래에 옮겼다.

(A) 저는 대학원 안에서 네트워크를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친밀성을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웃음) 그게 막 같이 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같은 거를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다음에 약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친밀성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연구를 같이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는데...(F5E3)

(B) **감정적 동조가 많았어요. 저는 같은 시대를 전공한 사람이 바로 위에... 바로 저희 지도교수님이신데 그렇게 같은 시대를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았고...(F8H3)**

(A), (B) 과정생 모두 같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동질감이 주는 안정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감’, ‘친밀감’, ‘감정적 동조’ 등은 학문 공동체 네트워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네트워크 속에서 지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정서적인 안정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 네트워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로, 학문적 교류 못지않게 연구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 네트워크의 확장

학과 내 스터디, 교내 세미나, 학회 활동 등 학내 네트워크나 학회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또한 있다.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스터디를 할 인원이 없고, 코로나 등의 여파로 서로 모이기도 힘들어 기존 네트워크가 끊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학내나 학회 안에서의 네트워크가 한정적이며 지속적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겠다.

㉔ **공감했던 부분이 학술 행사를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진행하잖아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나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들을 전국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때 뿐인 것 같아요. 인사 나누며 명함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만남이 그때만 잠깐인 거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교 바깥에서 우리도 뭔가를 해보자로 하는 모임처럼 연결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학회에 발표가 있을 때 토론자 초청한다거나 그럴**

때 말고는 사실 같이 뭔가 연구라든지 뭘 좀 도모해보자 하는 쪽으로 전혀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네트워크가 절실하고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F5E1)

- ⑥ 대학이라는 공간 혹은 학계라는 장소에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돼있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혹은 말해야 하는 주제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학계에서는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도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경계가 분명한 탓에 말하기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 안에서조차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면 현장이고 학교 바깥이라고 하면 학교 바깥인 곳에서 만나기도 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밖에서 나가려고 밖에 나가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더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계속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해요. 아까 생활 언어와 학술 언어 얘기도 했지만 계속 학교 안에 있다 보면 학계의 권력 구조에 익숙해져서,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대학원생으로서 경험하는 어떤 것들이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인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내가 되게 연구자로서 고립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편협해진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다른 학교에 적응 두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어떤 관점 같은 걸 들으면서 되게 균형을 찾고 싶다. 그 균형을 가지고 싶다. 이런 욕구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F5E3)

④ 과정생의 이야기처럼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지적인 자극은 받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이어져 인적인 교류로 확대되는 것은 거의 드문 경우이다. 학회라는 틀을 벗어나 외부에서 학술적 교류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⑥ 과정생은 대학과 학계라는 틀이 형성한 권력 구조에 갇혀서 편협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학내, 학회 네트워크에 속하지만 실상 이곳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한다.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교류하지만, 제도권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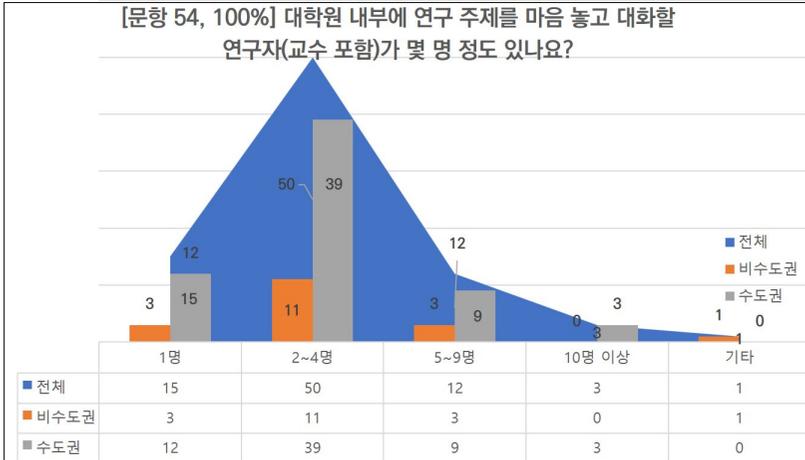
들이 가지는 고립과 한계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 형성조차 어려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지방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다.

네트워크가 부족한 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봐도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그 근거를 어떻게 이렇게 쌓으면서 설명을 하는지도 구경을 하고 싶는데 그걸 구경을 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적 한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의 000000를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라도 한번 가보려고.... 근데 교통비가 정말 너무 엄두가 안 났어요. 매주 KTX 타고 왔다 갔다가 대학원생 호주머니 사정으로는 이거 엄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제 고립이 되고 비전일제 대학원생 선생님이랑 무언가를 하기는 내가 너무 진이 빠지고 그러니까 개념을 A부터 Z까지 다 설명 이것부터 들어가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다 진이 빠져버리거든요. 논의고 뭐고 이런 거 할 것도 안 돼버리고. 한 가지는 네트워크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너무 너무 부재한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F3C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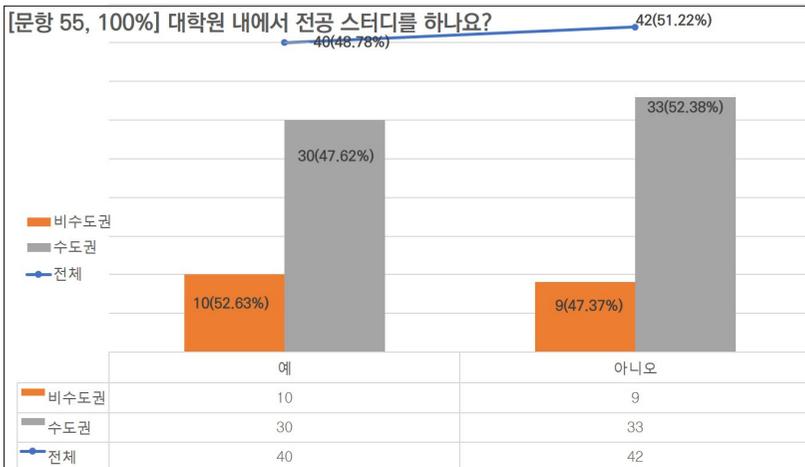
위 과정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학문 네트워크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인문사회과학 연구도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방 대학원생들의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려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여의치 않았음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원 내부의 네트워크나 세미나, 학술대회 참석 등이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걸까? 온라인 설문 결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대학원 내부에 연구 주제를 마음 놓고 대화할 연구자(교수 포함)가 몇 명 정도 있나요?'(문항 54)라는 질문인데, 아래의 <그림 1>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2~4명'이 각각 61.11%, 61.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림 1〉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54’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설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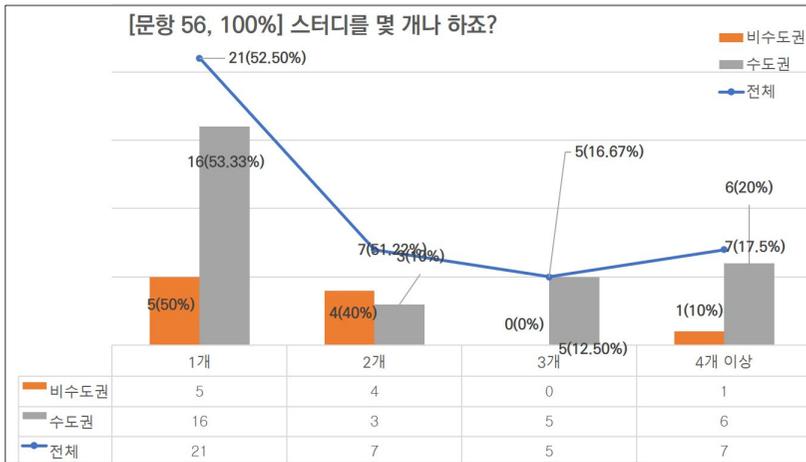
그리고 ‘대학원 내에서 전공스터디를 하나요?’(문항 55)라는 설문에는 비수권이 수도권보다 ‘예’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2〉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55’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설문 분석

위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수도권 박사과정생 19명 중 10명이 스테디를 하고 있었으며(52.63%), 수도권 경우 스테디를 하지 않은 박사과정생이 3명이 더 많은 33명으로 나타났다(52.38%). 근사한 차이지만 비율면에서 비수도권 과정생들이 수도권 과정생보다 비율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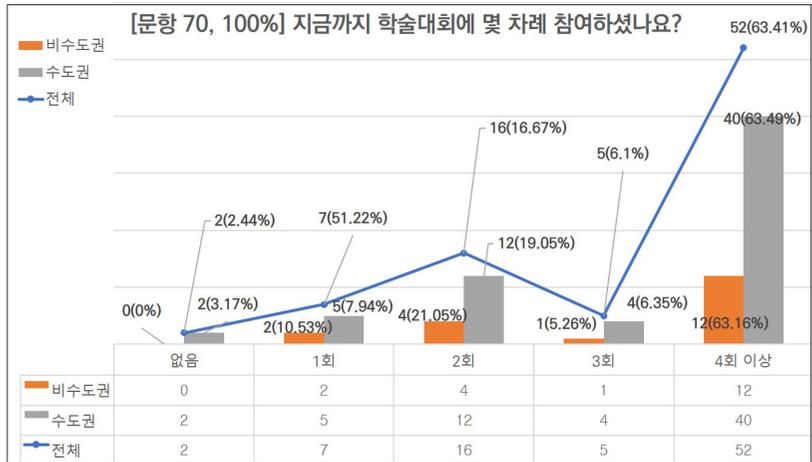
이어지는 '문항 56'에서 '스테디를 몇 개나 하죠?'라는 질문에 '1개'가 비수도권이 50.00%, 수도권이 53.33%로 가장 많았다. 아래의 <그림 3>을 보면 비수도권 전체 과정생 10명 중 90%가 1개나 2개의 스테디를 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30명 중 19명(63.33%)이 1개나 2개 정도 스테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3개나 4개 이상 스테디를 하는 경우도 5명, 7명으로 적지 않은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3개는 0명이고, 4개 이상은 1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짐작하건대 연구자 수의 한계와 코로나 이후 학문 공동체 문화가 축소된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림 3>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56'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설문 분석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참여 횟수에 대한 설문인 '지금까지 학술대회에 몇 차례 참여하셨나요?'(문항 70)에서도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4회 이상이 각각

63.41%, 63.49%로 높았다.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 4>가 이를 도표화 한 것이다.



<그림 4>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70’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설문 분석

이 온라인 설문 결과만을 놓고 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학문 네트워크에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지방대학교 박사과정생이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문제일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과정생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학문 네트워크가 지역 안에 머물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문 네트워크도 지역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연구 네트워크로의 접속을 시도한 것이다. 즉, 지역 네트워크의 한계와 고립감을 수도권 네트워크의 접속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과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 간의 플랫폼¹¹⁾ 연결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11) 인문사회 분야의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식 공유’라는 측면에서 ‘지식 플랫폼’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필요성, 지역 편중성에 대한 연구성과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한계와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한 과정생은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학내 교류가) 코로나로 끊긴 건 맞습니다. 근데 읽어줄 수 있는 기회는 최근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거 너무 예외적인 사례이긴 한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희 과에는 그런 교수님이 안 계신데 이런 학생들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특히 후배들이 선배들을 몰라서 힘들다,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학교는 왜 끊어져 있냐라는 불만을 말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자리를 조금 만들어 주셨고 그럴 때는 보통 관심사가 좀 통해 있어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주면서 만나게 돼서 저는 최근에 후배들이랑 좀 연결이 되었던 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런 상황을 되게 답답해하는 편이어서 글을 돌려볼 수 있는 동료 및 연구자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기말 페이퍼 같은 거 가지고 와서라도 읽어 보자라는 자리를 만들었고 근데 저희 과에서 가장... 그런 글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은 저는 사실 BK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BK에 당장 내야 되니까 못 쓴 글이나 미완성의 글을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만큼만 발전된 글을 보여주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논문으로 만들어서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완성되지 않은 글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고 그래서 못 쓰는 글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유치한 이름의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 모임 이름은 '망한 논문 발표회'예요. (웃음) 그렇게라도 장벽을 낮추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만들었고, 그게 이제 요즘은 거의 다 모든 세미나가 줌으로 운영이 되니까 줌에서 운영을 하게 됐고, 지금 저는 박사 논문이 바빠서 빠지게 됐지만 그게 어떻게든 조금씩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박사 논문에서 예비 발표를 하셨던 분이 조금 고쳐서 이거를 좀 읽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석사과정도 들어오고 박사과정도 들어오고 다른 학교에 전혀 다른 전공분들도 들어오시게 돼서 그런 식의 자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에나 있을 건 아니고 제가 운이 좋게 이렇게 호응하는 분들을 적절한 타이밍을 만나게 되어서...(F2B3)

위의 과정생은 완성되지 않은 글이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00 00 발표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논문이라는 형식에 얽매어서 완성도를 먼저 생각한다면 도저히 성립되기 어려운 발표회이다. 하지만 논문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고, 논문 한 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모든 글이 논문화되지도 않는다. 습작에 그치거나 후속 연구로 미뤄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완성되지 않은 글을 발표한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속에 더욱 활성화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00 00 발표회'와 네트워크를 활성화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자.

제가 만든 그런 '00 00 발표회'는 사실 그런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끼리 힘들어서 만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저의 감정적인 동료 위치 그리고 주제를 공유한다는 감각에서 주는 소중함은 너무 크지만 이게 또 한국에 이미 자리를 잡거나 자리를 잡기 직전인 분들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와는 유리되어 있다는 감각도 들죠. 거기서 오는 고립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쓸 때 그것까지 떠올리면 너무 힘들어요.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설 때마다 너무 떠오르고 사실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그 걱정이 매우 컸어요. 저는 감사하고 감사 활동을 하면 선생님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이클이 그리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뵈는 입장에서 정말 신규 연구 인력이 들어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분들은 또 너무나도 새로운 학자가 없어 라는 말씀을... (웃음) 쉽게 하시거든요. (웃음) 새로 들여보내 줄 의향이 있으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웃음) 네 그런 고립감도 너무 있습니다.(F2B3)

'00 00 발표회'가 대학원 기관이나 학회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의 네트워크와 유리되어 있다는 고립감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들이

주관하고 경비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도 지속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권 밖에 있지만 학문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서울에 소재한 '000'은 인문사회과학 전공 연구자들이 모인 학술연구단체이다. 이 단체는 앞서 지방 대학원생(F3C3)이 관심을 가졌던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이 단체를 설립한 이들도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생들이다. 이들과 FGI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설립 취지부터 살펴보겠다.

(1) 저는 학교 밖을 생각했을 때, 저는 학내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진짜 엄청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 어렵고 되게 계속 속상했던 지점이 후배들이 안 나온다. 내가 하자고 해도 안 온다. 개네는 그냥 자기들끼리 혼자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학문 공동체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 스펙 쌓아서 나가는 곳이고 어떤 사람은 석사 끝내고 취업하기 위해서 석사하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 대학에서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중략)..... 그래서 대학 내에서도 되면 좋은 건데 저는 그런 이런 식의 공부하는 커뮤니티에, 대학 밖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F1A1)

(2) 저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인데 이를테면 제 전공이 언론학에서 문화 연구라는 좁은 전공 분야라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제 은퇴가 가까워, 지도 교수를 포함해서 은퇴가 가까우신 나이가 되니까, 또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못 받으신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대학원 자체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학과 안에서의 어떤 공부 모임이라든지 좀 더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줄어들고 제가 혼자 하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싶고 그런데 그런 모임이 없나 라고 하다가 이제 옆 학교에 누가 있다고 해서 만나고 또 연결해서 만나고 이리다 보니까 조직이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문제 플러스 대학원의 어떤 조건 이런 게 관련있지 않나...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학내에서도 뭔가 계속 공부하는 모임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없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비슷한 전공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니 관심사도 되게 겹칠 텐데 그러던 일단 이걸 그걸 학내에서 먼저 하고 바깥으로도 나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두 가지가 다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F1A2)

학문 공동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앞선 여러 과정생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학내나 학회 등 제도권 내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학내와 외부가 단절된 곳이 아닌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도권 안, 제도권 밖으로 굳이 나누지 않고 서로 오가면서 장단점을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000'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도권에서는 얻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도 살펴보겠다.

(a)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전공, 문화 연구라는 전공 자체가 이제 학문 분과에 상관없이 여러 가치를 가져다 쓰기도 하고 같이 협업하기도 하는데 언론학 학과 안에 있을 때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와서 만나보니까 철학하는 분도 만나고 정치학하는 분도 만나고 소통도 되고 그 다음에 잘 몰랐던 거에 대해서 자극받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지평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학과 안에서 보다.(F1A2)

(b) 학과 안에 커뮤니티 유명한데 동시에 그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깥을 경험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000 활동할 때 그걸 계속 대학원에 알리고 데리고 오잖아요 제가 자주. (웃음) 홍보해서 물론 너 이거 와라 하지는 않지만, 홍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참여하면...(F1A3)

(a) 이야기에서 외부에서 학과, 학문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

라는 이름으로 서로 소통하고 학문적인 자극을 받고 있는 즐거움이 느껴진다. 그래서 (b)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후배들도 같이 나누고자 계속 유혹 아닌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도 그려진다.

그런데, '000'은 학내, 학회라고 이름하는 제도권의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여기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도 역설하였는데, 이 목소리도 들어보자.

국가가 재단에서 뭘 줄 때, 그냥 줄 때도 있지만 이걸 써먹기 위해서 주는 때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모으거나 아니면 어떤 트렌드를 보거나 그리고 싶어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로 나올 때가 있는데, 두 가지를 좀 다 봐줬으면 좋겠어요. 학문 영역 혹은 이론적인 영역에서 그 나름대로 또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도 이를 테면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쪽은 당연히 국가에서 이걸 원할 테니까 그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두 가지를 두 가지 모두 다 학문 영역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뭔가 이런 재단의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서포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F1A2)

국가의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의 경우는 국가의 직접적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안더라도 이 또한 학문의 영역이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임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000' 소속은 아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한 과정생의 이야기도 있어 아래에 함께 소개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이제 모임비라든가 도서 구입비라든가 약간 그런 거라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사실 그런 세미나 같은 것들이 되게 다 알음알음 이렇게 이게 연결돼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지어 어떤 기관 외

부에는 어떤 연구자들이 모인 학교 밖 연구자들이 모인 그런 이제 모임들도 있으니 그게 공식적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곳들도 꽤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홈페이지가 있고 세미나 나가 있으면 공지를 하고 약간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그렇게 있다더라,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더라, 거기서 그런 세미나를 한다더라, 이런 식의 정보가 있어야지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는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보건학과인데 제가 혼자 정치학 서적을 읽고 싶다 하면은 여기 보건학과에서 같이 읽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같이 읽을 사람이 있으면 좀 그런 걸 연결해 준다거나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F9I2)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세미나에 모임이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네트워크가 서로 이어져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장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람들 간에 네트워크로 잇고 이를 통해서 인문사회과학의 저변이 확대된다면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네트워크를 제도권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나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보다는 이 학문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기획하고 사람과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을지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학문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내나 학회 등에 머물지 않고 제도권 밖으로 뻗어 나가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것은 인문사회과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 속성과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문사회과학은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어느 학문 분야보다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이 요구된다.

네트워크는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달리 말하면

학문 연구의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가 갈수록 다양화, 다변화되는 만큼 이를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도 다양화되고, 뿌리가 되는 네트워크도 계속 경계를 넘어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뿌리와도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를 확대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누지 않고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한다.

IV. 나오며

서두에서 MBTI를 언급하였지만, 사람들의 성격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상은 16가지 이상의 다양한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인문사회과학이다. 많은 사람들의 숫자 만큼 사람과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다각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랜 시간 관찰과 관심이 요구된다.

인문사회과학이 사람과 사회를 단시간에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학문이 아니고,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만족에 가까운 연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오는 것은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문사회과학이라는 신념이 있기에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 스스로가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기에는 연구 환경이 척박하고 힘에 부칠 때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개선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들이 독립 연구자로서 연구할 수 있고, 연구를 발표할 수 있으며, 연구를 지

속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인적인 학문 공동체 형성, 네트워크 형성과 플랫폼으로의 연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몇 년 전 TV에서 한 광고가 생각난다. '모소대나무'라는 식물이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 4년 동안 30cm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5년 후부터는 하루에 30cm 자란다고 한다. 이렇게 성장한 모소대나무가 사람들에게 산소와 휴식, 안식을 주는 것을 알기에 모소대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문사회과학도 식물에 비유하자면 모소대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느리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문사회과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과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를 이끌어갈 박사과정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인문사회과학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4월 11일 접수
2023년 6월 22일 수정 완료
2023년 5월 22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김인숙, 양은배. 2015. “의과대학 연구력 향상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인식 및 연구 활성화 요인”, 『의학교육논단』 17(2) : 71~76.
- 류인태. 2022. “인문학술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한 시론”, 『한국학』 45(2), 2022 : 129.
- 류준형·윤경애, “위키(WIKI) 플랫폼을 활용한 인문학 교과목의 교육 방법 모색 - 역사, 문화 강좌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34(3) : 581~606.
- 배성인. 2019.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들의 연구안전망을 위한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경제와 사회』 121.
- 정충기. 2008. 『우리나라 토목공학 연구력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한토목학회지』 56(6) : 7~8.
- 하경자. 2016. “미래 100년을 위한 한국기상학계의 미래발전 방향과 연구력의 발전 방안”,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358~359.
- 김인수, 박민철, 송경호, 이대성, 이윤정, 이민기. 2022.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울산과학대학. 2003. “의학전공자의 국내외 진출 및 연구력 실태 조사 연구”, 한국과학재단 : 150~165.
- 이정미·김은영·이길재·임소현·장덕호·한경희. 2013.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진일상. 2009. “인문학 분야 기초연구인력 양성현황 및 질적 제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Research Power and Research Network of Doctoral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ee, Yun-Jeo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che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Department of History, Hallym University

Abstracts

Doctoral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e striving to establish their identity by reflecting on their pride and pressure as researchers, contemplating new research, and acquiring the ability to continuously plan and carry out research, in order to become outstanding researchers. For Doctoral students, their identity as researchers is closely related to their research abilities, and writing can be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for enhancing their research capabilities. In the graduate programs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systematic support for writing as it is currently not well-established. Furthermore,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academic papers,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he grading system for “thesis research” credits in graduate programs. To support Doctoral students in their continuous research, economic measures need to be put in place so that they can receive financial support as “independent researchers.” Recognizing and supporting Doctoral students as independent researchers can provide them with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and expand the recognition of researchers in society. The academic community of researchers, or “research network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nhancing research capabilities and creating a supportive research environment through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emotional stability. Research networks are a source for the research environment to continue, and should be activated as the most basic roots that make up the research ecosystem. The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the research network should be judged by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research, not by the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rights. In order to

expand the research network, it is necessary to form a platform to share the network. In particular, the platform connection will be a way to overcome the academic network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Keyword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octoral Student, Research Capacity, Researcher Identity, Research System, Writing, Network, Platform, Focus Group Interview(FGI).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양가적 정동을 통해 본 학술장의 변화

— 국내 박사과정생의 초점집단인터뷰(FGI)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 대 성**

요 약

이 논문에서는 국내 박사과정생 대상 2022년도 초점집단인터뷰(FGI) 자료를 활용해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가 학술장에 대해 갖는 양가적 정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장에 참여하는 박사과정생이 연구자로서 지닌 이해관심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및 평가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학술장의 변화 가능성을 제안한다. FGI 참여자들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을 향한 조롱과 동정을 내면화하며 국내 학술장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대신에, 연구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신뢰하며 긍정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정하며 학술장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었다. 양가적 정동은 박사과정생이 학술장의 협력과 경쟁 관계에 참여해 쾌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함께 어울리는 일부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 불쾌감을 느끼며 나타난 것으로 국내 학술장의 변화를 예측하게 했다. 박사과정생들은 국내 학술장의 지식 생산이라는 이해관심에서 쾌감을 느끼고, 교수 집단 중심의 학계로 포괄되지 않는 학술장에서 연구자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일부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박사과정생은 국내에서는 연구자들끼리의 상호 평가가 인정되지 않기에 불쾌감을 느꼈다. FGI 참여자들은 국내 학술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했을 때 학문 기성세대의 연구자들과 경쟁, 협력하며 느낀 쾌감을 높이고 불쾌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문 게재뿐 아니라 자료 수집과 정리, 학술 연구에 기반한 다양한 모임, 활동 등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학술 정책을 요구했다.

주제어: 박사과정생, 초점집단인터뷰(FGI), 학술장, 이해관심, 양가적 정동

* 이 연구는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연구총서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의 「4장. 연구비 지원과 평가 방식: 우수연구자상과 연구 업적」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HK연구교수), bbagasari23@hanmail.net

I. 서론

이 논문에서는 국내 박사과정생 대상 2022년도 초점집단인터뷰(FGI) 자료를 활용해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가 학술장에 대해 갖는 양가적 정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장에 참여하는 박사과정생이 연구자로서 지닌 이해관심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및 평가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학술장의 변화 가능성을 제안한다.

대학 내 교수 적체와 대학 외 사회진출의 어려움 등 인문·사회 분야의 박사학위자를 포함해 박사과정생 모두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하는 연구는 10년 이상 지속되었다(진일상, 2008). 정부는 국내 연구자를 세계적 수준으로 양성하고자 두뇌한국(BK)21, 인문한국(HK) 사업 등을 통해 국가적 투자를 확대했으나(김명진·배관표, 2022),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제도가 등재지 논문을 중심으로 체계화되면서 학술장은 논문의 ‘과잉’(김종갑, 2006), ‘대량생산’(천정환, 2010)하는 연구자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원 교육에 투자한 국가사업은 학술장의 논문 과잉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박사과정생의 연구 활동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10여 년 전의 국내 박사과정생이 박사 학위논문의 작성 능력을 입증 받는 과정에서 졸업 전에 1~2편의 논문을 게재했다면, 현재의 박사과정생은 연구비를 받고자 매해 또는 매 학기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김인수 외, 2022: 108, 159). ‘논문 편수 늘리기 경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실적 압박에 박사과정생을 노출시켜 학술장에서의 이탈 또는 지식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초래했고,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공부하는 ‘성실한 연구자’를 배출했으나 질 좋은 한국어 논문을 점점 줄어들게 했다(강수영 외, 2022: 141, 174).

하지만 대학원 교육, 연구자의 생계, 논문의 가치 등에 대한 우울한 현실 인식에 직면해서도, 여전히 본인에게 중요한 연구 주제를 해결하고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기를 꿈꾸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박사과정생 중 석사과정을 힘들게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드물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가 처한 열악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박사과정생이야말로 교수 임용의 낙관적 꿈에 이끌리기 보다는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 자문하며 본인만의 연구 주제에 이끌려 대학원에 진학했다(김성익 외, 2022: 32). 인문·사회 분야 학술장의 재생산 문제는 교수 사회의 업적 평가와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학문 기성세대와 협력하며 경쟁하는 박사과정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생산할 학술 지식의 생산과 유통의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논의되어야 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문후속세대를 넓은 의미에서 비정규직 박사학위자로 통칭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연구자 안에 박사과정생을 일부 포함하여 규정하면서, 학계의 ‘후속’ 인적기반의 핵심에 있는 박사과정생의 지위를 논의하지 않는다(진일상, 2008; 김귀옥, 2018). 그리고 박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문후속세대라기보다는 대학원 교육의 대상으로 연구하여 대학원 교육 제도 또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이정미 외, 2013; 김승정, 2017). 그에 따라 박사과정생에게 독립적 연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학술 정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박사과정을 거쳐 생산될 미래 학술 지식의 성격이 무엇인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2년에 국내 박사과정생의 연구력(Research Capacity)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인수 외, 2022). 본 연구자는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선행 연구에서 제기해온 대학원 교육과정의 부재, 대학원생 인권 침해, 경제적 빈곤, 논문의 과잉 등의 문제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여러 학문 재생산 체계의 위기 담론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국내 학술장에 참여해 기성 연구자와 협력, 경쟁하는 박사과정생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서는 학문후속세대를 비정규직 박사학위자가 아닌 박사과정생으로 재규정하고, 연구력의 지표를 논문뿐이 아닌 경제적 비용, 지식 자원, 인적 네트워크 등 연구자가 연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포함하도록 재규정하면서, 선행 연구와 유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상이한 학술 정책을 제안했다. 박사

과정생은 교수 임용, 연구비 수주 등의 과업 앞에 경쟁해야 하는 박사학위자 혹은 세부전공의 지식을 갖 습득해 박사 진학이나 제2의 진로를 준비하는 석사과정생과 달리, 자기의 연구 주제를 학문의 언어로써 소통하기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정책 제언 중 ‘박사과정생에 대한 연구비 직접 지원 체계로의 전환’과 ‘박사과정생의 연구 업적 평가체계의 전환’은 박사학위자나 석사과정생과 같은 동일한 기준을 박사과정생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박사과정생이 실질적으로 자료 조사 및 방법론 습득 등의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소논문을 작성해보고 박사 학위논문을 완성해 독립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술 정책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박사과정생이 석사 학위논문을 작성한 뒤에 본격적으로 학술장의 행위자로 활동하고자 한 이해관심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학술 규칙 그 자체의 문제를 재검토한다. II, III장에서 이론적 배경과 초점집단인터뷰(FGI)의 연구 방법을 정리한다. 연구 결과로서 IV장 1절에서는 국내 학술장의 문제적 상황을 재확인하는 입장에서 국내 박사과정생의 이해관심과 양가적 정동을 분석한다. IV장 2절에서는 국내 학술장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FGI 참여자의 의견을 근거로 박사과정생의 학술적 이해관심에 부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논문에서는 국내 학술장에서 지식을 수용, 생산, 유통하는 모든 행위가 연구 동료자와 관계 맺으며 느낀 쾌감과 불쾌감에서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학술장’과 ‘정동’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좋거나 싫은 정동적 관계로 여겨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학술장을 상호 혐오의 장 또는 상호 존중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장이란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field)’ 이론을 참고해 일부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공통 규칙을 준수하고 생산물을 전유하고자 투쟁

하는 세력 공간으로서 장 내 연구자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야기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토대를 살펴보는 데 활용된다(정수복, 2022: 371, 376). 부르디외는 장 내 규칙과 이득 등에 대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믿음’을 ‘이해관심’, ‘일루지오’, ‘리비도’ 등의 용어로 다르게 부르며, 행위자는 물질적 이득 이상으로 ‘비물질적’ 이득을 얻고자 해당 장에 참여한다고 설명한다(부르디외·바강, 2015: 74). 또한 부르디외는 행위자가 해당 장에 참여하고자 투명한 특정 자원과 그 자원으로 인해 얻는 이득을 가치 있게 납득해야만 장 안에서의 투쟁을 지속한다고 본다(부르디외·바강, 2015: 202).

한국 사회에서 학문 기성세대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가졌던 이해관심은 ‘교수 임용, 연구비 획득’ 등 객관적 관심과 ‘학계 선구자로서 명성과 영향력’ 등 주관적 관심이었다(심은비·오현석, 2019).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학술장에 진입한 박사과정생은 경험적으로 이미 고등교육의 위기 담론에 익숙했다.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정부, 대학, 언론 등이 ‘논문 편수’ 중심의 평가 제도를 통해 국내 연구자의 활동 전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대학과 교수 사회는 업적 평가로 인해 피곤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천정환, 2010: 193, 206).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이 ‘기존 대학과 학계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현실 인식은 2021~2022년에 생산된 대학원생 FGI 녹취록과 언론 기고문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홍덕구, 2023: 179).

그러나 박사학위자는 늘고 대학교수 임용의 기회는 줄어들면서, 교수 집단 중심의 학계로 포괄되지 않는 학술장의 영역에서 박사과정생들이 기성세대와 경쟁하며 성장할 만한 연구 환경의 구축이 요청됐다.¹⁾ 이러한 변화를 특정 이해관심 때문에 상호 관계적으로, 즉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정동의 차원

1) 교수와 연구자 사이의 분화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분화가 부르디외의 이론을 빌어 ‘국내 학술장’의 질적 변화를 바라보게 한다. 부르디외는 ‘문화예술 장’의 형성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카데미 제도 내 인구 증가’에 따라 제도에 속하지 못한 문화예술 생산자들에 의해 ‘근대적 예술가에 특징적인 새로운 사고와 생활양식’이 실험되었으며, 비로소 전문가 집단을 통제하는 위계적 기구 대신에 예술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쟁의 장이 구성되었다고 본다(부르디외, 2012: 101).

에서 바라본다면, 2) 객관적 관심에 희망을 갖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꺼이 학술 연구를 선택하고 보람을 느끼는 박사과정생의 존재를 온전히 지지할 수 있다. 학술장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FGI 참여자가 어떤 이해관심 때문에 쾌감을 느끼며 국내 박사과정에 진학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어떤 관심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하는 양가적 정동이란 단순히 동일 대상에 대한 모호한, 상충하는 개인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국내 학술장에서 기성세대와 같이 지식 생산이라는 이해관심을 긍정하는 한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술적 이해관심이 평가 절하되고 있기에 기성세대를 부정하는 사회적 갈등의 정동이다. 3)

-
- 2) 일부 학술 논의에서는 ‘개인의 감정(emotion), 느낌(feeling)’과 ‘집단적 정동(affect)’을 구분한다. 구분의 근거는 신체와 정신, 개인 간의 분리 유무여서, 정동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동을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방식이 아닌 훨씬 더 집단적이고 ‘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선호한다(그레그·시그워스 편, 2015: 25). 이에 반해 사라 아메드처럼 감정 또한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며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순환한다고 본다면, 감정과 정동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Sara Ahmed, 2004: 1). 이 논문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일지라도 그 또한 사실상 학술장 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낀 사회적 감정이라는 차원에서 ‘정동’이라는 개념을 통용하여 쓴다.
- 3) 정동의 양가성을 해석하는 방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프로이트 방식으로 의식이 부정하는 것을 무의식이 긍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프로이트, 2009: 445), 폴 드만 방식으로 언어의 기만성을 근거로 지시적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를 결정하기란 불가능하고 볼 수도 있다(드만, 2010: 163). 또는 로렌 벨렌트의 방식으로 낙관적 미래를 기대하며 지금의 좌절과 고통을 야기하는 관계에 집착한다고 볼 수도 있다(그레그·시그워스 편, 2015: 169). 니체는 쾌감과 불쾌감의 양가성이 겹쳐 보기에 동일할지라도 반동적 인간형과 능동적 인간형에게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고 본다. 반동적 인간형은 무력하여 행위의 반작용이 금지되어 있기에 적대적 외부세계를 향한 상상의 복수와 구원에서 쾌감을 느끼고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정체되어 불쾌감을 키운다. 능동적 인간형은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좋은 것으로 느끼며 행동하고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쾌감을 느끼고,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 불쾌감을 느낀다(니체, 2021: 59-64). 이 논문에서는 의식/무의식, 지시/비유의 결정 불가능성으로 정동의 양가성을 보편화하거나, 교수 임용의 환상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정동으로 2022년 현재의 박사과정생이 느낀 정동을 병리화하지 않는다. 니체의 관점을 참고해서, 박사과정생은 연구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신뢰하며 긍정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정하며 학술장의 재생산에 기여한

III. 연구 방법

1. 초점집단인터뷰

이 논문은 ‘인문사회계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연구팀(이하 ‘연구팀’으로 약칭)에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총 29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10건의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로 약칭) 조사 결과의 일부이다.⁴⁾

연구팀은 ‘국내 학술사업에 대한 박사과정생의 이해도, 만족도, 수용도의 조사, 현행 제도가 담아내지 못한 현장 목소리’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이 집단 토의를 하며 새롭게 생각해낸 “정책적 제안”을 수집, 정리하는 방법으로 FGI를 선택했다(김인수 외, 2022: 23). 초점집단인터뷰가 특정 ‘전문가 집단의 토의’ 현장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통찰력을 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김영순 외, 2018: 369), FGI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의견을 주고받고 연구비 지원 및 평가 방식에 관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 다만 FGI가 집단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연구 주제인 ‘연구력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특정 FGI에서는 참여자가 겪은 ‘연구력 약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덜 제시되었다. 하지만 10건의 FGI는 한 집단에서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의견을 다른 집단에서 보충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최대한 수용했다.

다고 보았다. FGI 의견에서 자세히 확인되었지만, 박사과정생들은 학술장의 외부자가 소비하는 대학원생 ‘풍자’, ‘자학’ 개그에 설득당하며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4) 연구팀의 구성과 연구 참여자의 선정 등 절차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김인수 외, 2022: 30-33).

2. 연구 참여자

연구팀에서 선정한 FGI 참여자는 ‘박사과정생의 위치성/특징을 공유하는’ (김인수 외, 2022: 31) 연구자로서, ① 대학원 제도권 밖에서 연구 공동체를 운영하는 박사과정생 3명(1개 집단), ② 99개 항목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한 82명 중 지역, 학문 분과, 연구비 수혜 등을 고려해 선별한 24명(8개 집단), ③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2명(1개 집단) 등 총 29명이었다. 박사과정 단계별로 구분했을 때, 박사과정 코스워크 15명, 수료 9명, 박사논문 심사 전후 5명이었다.

〈표 1〉 FGI 추진 일정 및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차수	일시	대면 여부	박사과정 단계	집단 특성
1	2022년 5월 28일	대면	심사(1), 과정(2)	제도권 밖 공동체
2	2022년 6월 27일	대면	과정(2), 수료(1)	BK21
3	2022년 7월 7일	대면	과정(1), 수료(2)	호남지역
4	2022년 7월 18일	대면	수료(1), 졸업(2)	대학원 자치회
5	2022년 7월 21일	대면	수료(3)	영남지역
6	2022년 8월 14일	비대면	과정(3)	사회과학
7	2022년 8월 17일	비대면	과정(3)	철학
8	2022년 8월 20일	대면	과정(3)	역사학
9	2022년 8월 24일	비대면	과정(1), 수료(2)	보건/교육학
10	2022년 9월 17일	대면	졸업(2)	사회과학

3. 연구 절차

연구팀은 사회학, 철학, 정치학, 국문학, 역사학 분야에서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자 2명, 박사학위를 받고 2년 지난 연구자 2명, 5~10년 지난

연구자 2명 등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박사과정생의 연구자로서 삶과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들로”(김인수 외, 2022: 30) 구성됐다. 연구팀은 2022년 2월 결성된 이후, 3회의 대면/비대면 회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과제에 선정되어 4월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5월 9일(월)~6월 19일(일) 동안 FGI 참여자 모집을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 항목 99개를 작성하고, 6월 20일(월)~7월 25일(월) 동안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FGI 참여자를 수소문하여 설문에 참여케 했으며, 온라인 설문 조사의 종료 이전에 책임연구원의 진행 아래 5번의 FGI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종료 후 책임연구원 외 공동연구원 4명이 철학, 정치학, 보건/교육학, 역사학 등 분야에서 설문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FGI 참여자로 3~5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했고, 공동연구원들이 번갈아 진행을 맡아 4번의 FGI를 실시했다. 끝으로 최근 박사학위를 받은 2명의 참여자 대상으로 10번째 FGI를 실시했다.

모든 FGI는 2~3시간 동안, 20개 내외의 미리 제공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보조연구원이 구술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현장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이후 2명의 전사 작업자와 더불어 A4 용지 450매 분량의 FGI 녹취록을 작성했다. 녹취록 초고 작성 이후에는 각 FGI 참여자에게 발송하여 검토를 요청했고 활용에 대한 승인을 한 차례 더 받았다. 녹취록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세부사항을 생략하여 대외비 자료로 인쇄됐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실명 대신 FGI의 순서와 구술자 순서를 결합한 식별번호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F1A1은 1회 FGI에 참여한 1번 구술자, F10J2는 10회 FGI에 참여한 2번 구술자로 표시했다(연구 결과에서 FGI 참여자의 의견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식별번호를 적는다).

10월 7일 연구팀 회의에서는 1~9회의 FGI 녹취록을 검토한 각 연구원들이 집필 계획을 제안서 형태로 작성하여 회람하고, 대학원 교육과정의 부재(국내 인문·사회분야 대학원은 ‘석사대학원’), 박사과정생의 페르소나(스스로

‘불쌍히’ 여기거나 아직 연구자가 ‘아닌’ 자로 여기는 대신에 경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기여를 고민하는 연구자), (양질의 논문 작성에 대한) 박사과정생의 이중성, 연구력의 범주 확장(네트워크 능력 등) 등의 핵심어를 논의했다. 11월 12일 워크숍에서는 미국과 일본, 국내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있는 4명이 조사 보고서의 초고에 대해 토론하며 FGI 조사 결과의 편향성을 검증했고, 나아가 자신들의 박사과정 경험과 비교해 현재의 박사과정생이 경험하는 국내 학술장의 열악한 상황을 재확인했다.

이 논문은 FGI 참여자의 의견 중 ‘(양질의 논문 작성에 대한) 박사과정생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작성된 연구팀의 최종 보고서 4장 「연구비 지원과 평가 방식: 우수연구자상과 연구 업적」의 내용을, 연구자가 학술장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해관심과 이러한 이해관심 때문에 발생하는 양가적 정동이라는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IV. 연구 결과

1. 박사과정생의 이해관심과 양가적 정동

1) 국내 학술장에서 느끼는 쾌감

연구팀의 초점집단면접(2022.5.28.~9.17.)에서는 대면/비대면 구술 인터뷰를 통해 ‘우수연구자상’을 질문했는데, 이를 통해 박사과정생이 국내 학술장에서 얻고자 하는 이해관심을 확인했다. FGI 참여자는 정량적 기준이 아니라 정성적 기준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며 한국 사회에서 한국 독자에게 꼭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싶어 했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연구자 또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학술적 용어로 기록해 한 사회의 사유를 확장하는 연구자로서, 직간접적으로 연구자의 자기 존엄성을 지키며 연구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FGI 사전 질문지의 구성상, '왜 국외 유학을 하지 않고 국내 박사과정에 진학했는가'라는 질문이 앞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박사과정생이 국내 학술장에서 어떤 지식 생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언젠가는 저도 영어로 글을 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까지는 한국어로 된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커요. 해외 유학을 갔을 때는 그런 능력 개발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어쨌든 제일 먼저 훈련 받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영어식의 그런 문장투에 익숙해지고, 그쪽 세계에 익숙해지는 것일 텐데 어쨌든 국내에 나온 학자로서는 좋은 글이라는 거를 쓰고 한국어 공동체에게, 그런 전통이 잘 없지만 열심히 그런 한국어로 된 좋은 연구 문헌들을 축적하다 보면 우리 한국어 공동체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더 기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F10J2)

국내 대학원의 진학 사유를 묻는 질문에서 FGI 참여자는 국내 독자를 위한 한글 논문의 생산자로서 연구자의 가치를 신뢰했다. 그는 한글로 쓴 연구 문헌이 축적되어야 우선 한국어 공동체가 쉽게 읽고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독자가 읽을 수 있는 논문의 가치는 '훌륭한 연구자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반복하여 강조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연구자 그런 이상적인 모습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중략) 저는 좀 시의성의 분야가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오늘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자를 설득하는 (중략) 그런 부분에서 엄청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훌륭한 연구자가 아닌가 (F8H3)

어쨌든 연구를 한다는 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잘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연구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기에 잘 맞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타면서 진짜 그 시대 시대마다 사회에 필요

하고 부족한 지점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비어 있는 지점들을 되게 잘 찾아서 그게 남들이 안 하고 있어서 그냥 개척해야 될 길이 너무 험난 할지언정 그런 비어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 좋은 연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깊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장에 대한 깊이 이해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연구자가 좋은 연구자라고 생각해요. (F9I2)

위 인용 의견들은 FGI 참여자들이 국내 학술장의 새로운 지식 생산이라는 이해관심에 ‘홀름’하고 ‘ 좋게’ 느끼는 정동적 상태를 보여준다. 표현 그대로, “연구를 한다는 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행위이다.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란 당면한 “시대마다 사회에 필요하고 부족한 지점”, 즉 “시의성의 분야”에서 동료 연구자와 대중 모두를 설득할 만한 “엄청난 새로운 질문”의 생산이다. 새로운 지식이란 단순히 정보의 홍수 속에 잠깐 떴다가 가리앉는 지식이 아니라, 일반인, 정책 입안자, 활동가 등이 찾아 읽고 참고하여 한국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연구자는 기성의 지식에 속하지 않는 “비어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어떤 학술장 안에 들어가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게 되게 컸는데 외국 문학 전공 쪽으로 가면 현지에서 나오는 어떤 것에 비해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도가 되게 적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어떤 것을 소개하는 거에는 약간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략)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공부를 그냥 어떻게든 지속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정도의 좀 소박한 미래를 꿈꾸는 걸로 약간 바뀌게 된 것도 있는데요. (F4D1)

위 FGI 참여자는 여성학자로서 교수 임용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학술장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주된 이해관심으로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박사과정을 처음 진학했을 때에 ‘학술장 안에 들어가 큰 기여를 하고’ 싶었으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현재에는 기대치가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할 수 있는 공부를 지속하는 소박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공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박사과정생들이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의 열악한 환경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연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이유를 헤아리지 못한다. 학술장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FGI 참여자들이 학술 지식에 대해 갖는 이해관심에 동의하지 못한다. 학술장의 외부는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나온 말처럼 돈 안 되는 학문분야 대학원 진학 자체를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풍자'하기 쉬운 위치이다(홍덕구, 2023; 178).

하지만 인문·사회 분야의 FGI 참여자는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식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든, 소외 영역의 인간 삶을 학술적 용어로 기록하여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든, 외부인의 조롱과 동정을 내면화하기보다는 학술장 내부에서의 가치 척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긍정했다.

제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완전히 비주류적인 사람들이었고 되게 취약한 사람들이었고 되게 누구도 잘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는 이것을 어떤 논문이라는 글의 형태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연구자로서의 자의식이나 책임의식 같은 것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F5E3)

흥미 본위로 공부하는 것 이외에 연구자로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혹은 남들에게 나의 연구의 정당성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인문학은 확실히 경제적으로는 많이 돈이 안 되고 양적 지표화 할 수 있는 게 현저히 적다보니까 이게 어떤 평가를 딱 객관적으로 내리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학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인문학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사회가 많이 발전이 된 거고 그만큼 한 사회의 사유가 굉장히 증진되어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F7G2)

이들에 따르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 언급되지 않고 학술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무언가를 기록하여 한국 사회 내부에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력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하더라도,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누군가에 의해 읽히고 공적으로 활용되기 전부터 이미, 거시 구조 또는 주류 학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인간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만으로 한국 사회의 사유를 증진시킨다.

FGI 참여자들은 훌륭한 연구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 생산자 또는 주류 담론에서 소외된 영역의 인간 삶을 위한 학술적 기록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글로 기록하여 한국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온 술한 지식을 축적하여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자, 자신의 연구 역량을 기르고 있었다.

2) 국내 학술장에서 느끼는 불쾌감

국내 학술장에 참여해 지식 생산이라는 이해관심을 얻고자 한 만큼, FGI 참여자들은 정확히 동일한 이유에서 국내 학술장에서 불쾌의 정동을 느꼈다. 기존의 지식 체계 내에서 선행 연구를 답습하며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연구자는 새롭지 않은 그 연구 행위 때문에 연구자답지 않고, 국내 학술장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실상의 외부인이다.

좋은 연구자라는 개념이 제가 그냥 봐왔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연구자를 평가하는 걸 보면…… (웃음) 대부분의 연구 실적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학술지에 투고를 많이 하면은 연구를 잘하는 분이다. (웃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웃기는 걸 수도 있는데 (중략) 그런 측면에서 좀 실용적인 거 새로운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좀 앞서 나가는 연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F911)

위 녹취록에 그대로 적힌 “(웃음)”의 신호는 FGI 참여자가 말한 대로, “학술지” 논문 수로 평가하는 현 실태에 대해 “웃기는 걸 수도 있는데” 마냥 즐겁게 웃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자조감을 표현한다. 새로운 지식 생산에 대한 이해관심 때문에 박사과정에 진학했는데, 업적 평가를 위해 생산되는 논문들을 접하고 국내 연구자를 향한 ‘우스움’, 자조감을 느껴야 했다.

게다가 국내 학술장에서 논문 ‘표절’ 등 연구 윤리 문제는 학문 후속세대에게 ‘기겁’할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제가 석사 논문은 ○○거든요. 근데 F대 의류학과에서 ○○ 가지고 박사논문이 나왔어요. 그 핵심 주제 의식만 교묘하게 똑딱 따가는 거. 그런데 참고문헌에 제 논문은 없어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심사를 거쳤다는 소리인 건데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 검토에 대한 지적들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 처음 시작할 때 그 문제의식이 너무 흡사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쓰고 2017년도에 그 박사 논문이 나왔던데요. 보고 기겁했거든요. (F3C3)

학술 논문의 전문성과 고려해 일어나는 연구 윤리 문제는 심각한 화두였다. 논문의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어느 연구자가 공들여 조사한 자료를 인용 출처 없이 객관적 사실인양 무단 도용하거나, 간단히 인용 출처만 밝히고 빌려와 작성한 논문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기 쉬웠다. 위 FGI 참여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에세이의 언어가 아니라 일정한 체계에 맞춰 학문의 언어를 쓰고 학술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이해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논문 심사 과정을 강화하여 표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학술 논문의 권위를 바로세우기를 바랐다. 연구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평가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사과정생이 많은 시간을 들여 논문을 써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에 논문을 생산하면 어디 게재를 좀 쉽게 해 주고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횡수로 가는 거죠. 한 10페이지 되는

논문을 받아주는 데도 있고 계속 찍어내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차라리 약간 1도, 15도라도 트는 방안으로 그리고 논문에 애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온전히 쏟되 그러면 양보다는 1년에 한 편 2년에 한 편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F5E2)

국내의 학문 기성세대들이 논문 게재 수로 평가하는 국내 연구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박사과정생의 눈에 '부정적'으로 인식됐다. 연구 사업비를 받으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손쉽게 게재 가능한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또는 학회의 인맥을 이용해 엄격한 심사를 피해 투고하는 풍경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다. 위 FGI 참여자는 논문을 어디에 게재하면 쉽게 실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면, 오히려 학술지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대표 학술지에 실을 경우 평가 점수를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국내의 학술지 심사 과정을 엄격히 정비한다고 해도, 국내 연구력 평가 제도는 국외 학술 논문과 비교했을 때 국내 학술 논문에 낮은 등급을 매기고 있어서 한계를 지녔다. FGI 참여자는 국내 학술장에서 한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생산에 이해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이 국제 학술지 논문과 비교되며 노골적으로 무시되는 상황에 불쾌감을 느꼈다.

KCI라고 막연히 무시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이긴 좀……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SSCI는 600점 기준이고요. 교수들 실적 산정할 때. 그다음에 KCI는 10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용 과정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SSCI 한 편 쓰는 사람이 KCI 여섯 편 쓴 사람보다……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학교 자체가…… (F6F2)

일단은 당연히 SSCI가 중요하죠. SSCI가 중요하고. KCI는 가릴 수밖에 없죠. 경제학계에서는, 다른 학계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노골적으로

경제학계에서는 KCI를 누가 읽어라고 하죠. KCI를 누가 읽어? 실제로 아무도 안 읽죠. 실제로 아무도 안 읽으니까 흥미롭게도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한국어 연구도 안 하고 미국어로 연구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토론도 일어나지 않죠. (F6F3)

국내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은 KCI급 논문을 막연히 무시하는 학술장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국외로 유학을 가지 않는 이유가 한국에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데 있을지라도, 평가 방식을 따르다보면 불가피하게 한국의 독자가 읽을 수 없는 논문을 써야 한다. 문제는 국내 연구자의 논문이 국내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 아니다. 국내 연구자들 스스로 KCI급 논문을 무시하면서 안 읽고, 국내 논문을 읽지 않는 만큼 학술적 논쟁도 만들지 않는다.

학계에서의 인정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구력 평가’라고 하면, 그 평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어서 어떤 실적으로서의 의미에서 자율롭지가 않은 것 같고…… 실적으로서의 의미 외에 정말 진짜 뛰어난 학자라는 식의 어떤 학계에서의…… 말 그대로 자율적인 장으로서의 학계에서의 인정이 어떻게 실질적인 평가나 인정이 될 수 있을까…… (F10J1)

박사과정생들은 국내 학술장의 지식 생산이라는 이해관심에서 쾌감을 느끼고, 한국연구재단의 ‘실적 평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장에서 연구자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일부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심과 달리, 국내에서는 학계에서의 인정, 즉 연구자들끼리의 실질적인 평가가 인정되지 않기에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박사과정생이 갖는 학술장에 대한 좋거나 싫은 양가적 정동은 서로 상충하지 않았다. 박사과정생의 양가적 정동은 국내 학술장 내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관심을 ‘좋고’, ‘훌륭하게’ 긍정하는 만큼, 논문 수 중심의 평가 제도 때문에 ‘우습고’, ‘기겁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학계의 인정’이 부정

되면서 발생했다. FGI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로 논문쓰기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 국내의 논문이 국외의 청중에게 한국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국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국내 청중이 참고할 수 있도록 축적되기 바랐다. <심슨 가족>, <대학원 탈출일지> 등 대중에게 소비되는 대학원생의 이미지를 근거로 대학원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달리(강수영 외, 2022: 64), 연구팀이 만난 FGI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국내 학술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했을 때 학문 기성세대의 연구자들과 정당하게 경쟁, 협력하며 느낀 쾌감을 증가시키고자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제도가 초래한 일부 관행을 비판했다.

2. 학술적 이해관심을 촉진하는 학술장

박사과정생들은 국내 학술장에서 불쾌의 정동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될 만한 지식을 생산하기 바라며 쾌락의 정동을 유지한다. 연구팀의 1차 설문 조사결과에도 나왔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월 최소 100~200만원으로 대부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의 이해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애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온전히 쏟고”(F5E2) 있었다(김인수 외, 2022: 96).⁵⁾ 하지만 과연 연구 참여자들이 ‘좋고’, ‘훌륭히’ 생각하는 연구 활동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학문 기성세대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 후속세대 또한 점점 새로운 자료를 조사하고 방법론을 찾아내며 연구하는 작업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 하며 갈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FGI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연구 주제인 ‘연구력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박사과정생이 겪은 ‘연구력 약화’ 경험은 상대적으로 덜 제시되었다. 2022년 초부터 <교수신문> 기획연재 ‘천하제일연구자대회’에서 연구자들 개인의 경험이 공개되기도 했거니

5) 통계 결과는 공동연구원 송경호의 「질문지 조사의 개괄과 조사자료 분석」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와, FGI 참여자들은 일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의 열악한 처우를 상기하기 보다는 당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집단 토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FGI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연구자로서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및 평가 방식에 대해 제안한 해결책을 분석한 결과 1) 박사과정생생애 주기별 연구비 지원 및 평가, 2) 자료 수집, 분석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평가, 3) 강의, 모임 등 학술적 소통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평가 등 세 가지의 주제 범주가 드러났다. 이번 장에서는 이미 학술적 이해관심에 이끌려 학술장에 참여한 박사과정생들이 국내 학술장에서 느낀 쾌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한 학술 정책 방안을 정리한다.

1) 생애 주기별 연구비 지원 및 평가

FGI 참여자들은 ‘논문’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특히 ‘박사 학위논문’을 쓰기 위해 박사 진학 이후 평균 6~7년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김인수 외, 2022: 96). 2019년 8월 ‘강사법’ 시행 이후,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들은 과거와 달리 강의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는 조건에 놓이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연구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평가 방식에 의존해야 했다. 박사과정생의 학술적 이해관심을 향한 쾌감의 정동을 악용하는 학문 기성세대들은 석사과정을 포함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공계/인문사회계, 수도권/지역, 국립/사립, 국외/국내 박사 간 격차, 대학원의 위계, 동료 연구자와 교육과정의 부족 등 열악한 조건을 개인이 홀로 극복하도록 방치했다.⁶⁾

‘논문의 가치에 대한 믿음의 회복’(김종갑, 2006: 46)은 물론 필요하지만,

6) 홍덕구(2023)의 논문에서는 ‘인문사회 학계라는 장(field)’의 부조리한 현재와 ‘탈 대학’, ‘탈 연구재단’의 미래를 기술한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장이 심각한 불평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은 오랫동안 제기되었으며, 우리 연구팀에서도 재확인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대학’, ‘연구재단’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학술장의 지식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박사과정생들이 학술장의 중심에 편입되도록 독려하는 학술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주목했다.

그것이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에 한정된 정동의 투여일 필요는 없었다. 박사과정생은 석사 학위논문을 작성하며 연구의 매력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으나, 첫 번째 학술 논문을 쓰지 못하는 만큼 국내 학술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지금 부업을 3개 하고 있어요. 논문 게재를 한 번도 못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철학이랑 관련 없는 일을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논문 쓸 시간이 없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중략) 저는 논문 게재 실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기본 급여 같은 걸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났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더 실적을 내는 거니까요. (F2B1)

1편의 등재 논문이 없어서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박사과정생은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논문을 쓰지 못하고, 다시 기회와도 계속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박사과정생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며 처음부터(지원 단계) 끝까지(성과보고 단계) 등재지 논문 중심으로 평가하는 국내 학술장에서 박사과정생, 문자 그대로, 과정 중의 학문후속세대 위한 위치는 없었다. 따라서 일부 FGI 참여자들은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및 평가 방식과 다르게, 박사과정생을 위한 지원 및 평가 방식을 요구했다. 가령, 위 FGI 참여자의 의견대로 박사과정생에게 논문 업적을 기대하지 않은 채 기본 급여처럼 연구비를 먼저 지원하고, 논문을 게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연구 사업을 상상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연구팀은 박사과정생을 위한 연구 사업이 별도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3회차 FGI에서는 박사과정생의 생애 첫 논문 쓰기에 관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특히, 논문 게재 실적이 없는 박사과정생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랐다. FGI 참여자들은 서로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 중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박사과정생에게 지원하는 연구비 사업을 확인하기도 했다.

만들어 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네. 그럼 내가 근데 관심 없거나 돈 있으면 안 하겠죠. 근데 절박한 사람이 그 우물을 파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말했던 생애 첫 나의 연구, 뭐 이런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중략) 왜 이공계에는 있죠? 왜 인문대는 없어. (F3C2)

FGI를 통해 박사과정생들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연구 사업의 유형을 인지했다. 박사과정생들이 FGI에 참여하여 국가의 학술 정책에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FGI 참여자들은 당장에 특정 연구 사업의 세부 정보를 교환하지는 못했으나, “생애 첫 연구” 사업의 제목만 듣고 놀람을 표현했으며, 앞으로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동일한 연구 사업이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주고받았다. 2022년 기준, 국가 학술 정책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박사과정생 연구 지원사업은 부재했다. 게다가 과학 기술 분야의 지원 사업과 비교할수록, 금액 면에서도 차이 난다는 점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박사과정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박사과정생의 선택지는 학술연구교수 B유형 한 개밖에 없는데, 이 선택지 또한 박사학위자와 겨뤄야 하기 때문에 국내의 박사과정생의 각자도생은 매우 험난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에서는 박사과정생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쾌락의 정동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자 생애 주기별로 여러 개의 마련하여 박사과정생을 양성하는 데 힘쓰는 학술 정책을 구상했다.⁷⁾ 어느 FGI 참여자들은 국가연구장

7) 이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인문사회)’ 공지(2023.04.21.)를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박사과정생의 연구비 지원 정책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한때 있다가 없어진 한국장학재단의 석·박사과정생 대상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등과의 차별성을 염두에 뒀을 때 석사과정생 또는 박사학위자와 구분되는 정책 가능성(신청자격에 등재지 논문 1편 이상의 기준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기 중, 수료 이후, 학위논문 작성 중으로 박사과정 ‘생애 주기별 연구비 지원 및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게 된다. 게다가 신청자격을 수료 후 4년 이내로 제한한 부분은 여전히 오랜 시간 학위논문을 쓰고 있는 동년배 연구자들을 가슴아프게 생각나게 한다. 이제 만들어진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이 여러 개의 선택지로 분화되어,

학금 등,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연구 사업을 언급하며, 있었던 사업이라도 없애지 않기를 바랐다. 현재는 사라진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박사양성사업에 선정된 FGI 참여자도 연간 3,000만원, 3년 동안 지원받은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국가 연구 사업은 아니지만 일부 특정 대학에서 수료 이후 3년 간 1년에 2,400만원씩 지원받은 경험을 공유하며 국가의 학술정책에서도 검토해주기를 바랐다. 박사과정생을 위한 여러 개의 선택지 즉, 박사과정 중에 받는 연구장려금, 논문을 쓰며 받는 생애 첫 연구비, 수료 이후 지원받는 학위논문 작성비 등 그 누구도 완전히 새로운 연구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다. 과거에 또는 다른 곳에서 이미 운영된 연구 사업들이기에, 박사과정생이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는 여러 과정에 맞춰 설계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적용 가능한 생애 맞춤형 지원 사업이었다.

2) 자료 수집, 분석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평가

FGI 참여자는 오히려 연구비 지원 방식에 따라 한국 사회 내 견고해진 평가 방식을 문제 삼았다. 돈 문제를 앞세우기보다는, 과연 연구를 왜 하는가, 연구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연구의 성과는 어떻게 확산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따라 연구자 중심의 생태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대부분의 FGI 참여자가 박사과정생으로서 자기만의 새로운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방법론을 습득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저희 보건학 분야 같은 경우는 국가 건강보험 데이터 같은 거 많이 다루거든요. 패널 자료나 건강보험 자료 많이 다루는데 사실 건강보험 자료 구독료가 어마무시하게 비쌌습니다. 개인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정도예요. 70만 원, 100만 원 넘어가고 이래요. (중략) 건강보험공단 내부에

학위논문을 쓰는 여러 과정을 세분화한 만큼 연구 결과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박사과정생이 박사 학위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있는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들어가야 그나마 자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다 네트워크고 인맥이고 (중략)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그런 자료 접근성이 너무 제한적인 거죠. (F9I2)

어떤 분야의 연구자에게 1차 자료는 개인의 돈으로 구매할 수 없었다. 1차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기관의 아는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 등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1차 자료를 획득하여 정리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이미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 역량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1차 자료가 논문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박사과정생은 새로운 자료를 조사하는 작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

자료 획득이나 정리는 이제 한국연구재단 시스템에서 법적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중략) 여러 가지 기고도 많이 하고 현장 연구도 되게 많이 다니고 이런저런 자료 목록화도 많이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했는데 결국 논문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결국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연구의 피저빌리티나 아니면 연구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F6F1)

국내의 학술장에서 연구자는 논문 게재 수로 평가되기 십상이어서, 새로운 자료를 획득하여 자료 목록화를 하고, 현장의 여러 이야기를 각종 잡지에 기고하더라도, 논문을 쓰지 않으면 연구자로서 이해관심을 충족하기 어렵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는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국내 학술장의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이었다. 새로운 자료 정리와 수집만으로도 연구자의 이해관심이 충족된다면, 국내 학술장에도 다양한 연구자와, 연구 성과가 모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연구자가 논문을 생산하기에 앞서 ‘자료 정리와 수집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력을 평가하는 학술 정책을 제안했다.

3) 강의, 모임 등 학술적 소통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평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관심에 따라 연구하는 활동 그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 하고도 제 연구를 지속했다. 그러다보니 일부 FGI 참여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기에 앞서,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연구 목적에 집중하기 바랐고, 또 그 연구 자체에서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이 파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생활 언어와 학술 언어의 균형 잡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연구만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 강의의 시간을 굉장히 뺏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중략) 자기 학술 언어를 생활 언어로 풀어내면서 또 강의 기회도 있는 동시에 또 연구자로서의 자부심 고취 이런 차원에서 강사 지원비 이렇게 하는 것도. 단순히 지금 까지 이제 논문 관련해서 연구비만 지원 이것만 생각했는데 강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의외적으로 연구자로서의 자부심 고취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F5E2)

박사과정을 진학한 이들은 연구 사업 외에 대학 안팎의 강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박사과정생이 강의할 기회를 쉽게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강의할 때에는 연구할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곤 했다. 하지만 FGI 참여자 간의 토론은 연구자가 자기의 문제의식에 대해 논문 외에도 강의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데 합의점을 이끌어냈고, 위 FGI 참여자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다. 여태껏 강의와 연구는 마치 별개인 것처럼 인지되었으나, FGI 토의 과정에서 자신이 연구한 주제를 대학에서 생활 언어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을 헛되지 않았다고 인지하면서, 연구자에게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 이해관심의 일부였는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다. 박사과정생의 대학 강의는 단순히 연구자의 생업 또는 추후 임용 등의 취업 보장 목적이 아니라, 학술장에서 연구자로서의 이해관심을 충족하는 방법이었다.

박사과정생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른 연구자가 하지 않는 혹은 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성과를 학술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데서 연구자로서의 자부심, 즉 이해관심을 취했다. 학계 또는 사회 전반에서 소통될 만한 학술적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연구자는 지속 가능한 연구의 동력을 갖출 수 있었다. 다음의 인용은 교육과 연계하여 연구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지역이 살아남는 방법에서 찾은 경우이다.

국립대학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외국인 학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지역 사회에 있는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되는 게 지역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중간 단계로 자기의 커리어의 중간 단계로서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F5E3)

FGI 참여자에게 대학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이 아니었다. 만약 박사과정생이 지역에서 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었다. FGI 참여자는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데 힘을 쓰고 있지만, “차라리 지역 사회에 있는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하는 방안이 생긴다면 국내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이 상생하며 향상될 것이라 판단했다. 위 FGI 참여자가 대학 내 교육을 통해 학술적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면, 다음의 FGI 참여자는 대학 밖 교육을 통해 학술적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연구 영역 안에만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세상의 빛을 못 봐서 안타까운 논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논문을 사람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생기고 파급력이 생겨야 연구자로서 보람도 느낄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윤리적으로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것을 각 학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철학적으로 논문으로 써내고 그런 것들이 또 대중과의 접점을 찾아서 세상의 빛을 보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좀 틀이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F7G3)

위 FGI 참여자는 일반인이 읽지 못하는 논문을 대중의 영역으로 확산하는 서평 형식의 논문을 비롯하여, 아무도 번역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는 연구 성과를 대중과 소통하는 활동 전반이 평가 영역에 포함된다면, 연구의 생태계, 즉 일련의 연구 과정이 대중과의 접점을 형성하여 연구자의 파급력이 생겨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현행의 연구력 평가 방식이 대중과의 접점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논문의 게재 수로 연구력을 판별하는 만큼, 연구자를 대중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그만큼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본다. FGI 참여자가 보기에, 국내 학술장의 규모를 넓히는 방법은 자료 수집과 정리를 비롯해 학술 언어를 대학 안팎으로 소통하는 여러 활동들을 정당하게 지원받고 평가받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 제도에 속하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다수 출현해 연구 그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교수 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춘 세계, 즉 '학술장'을 형성한다는 관점으로 FGI 조사 결과를 해석했다. 현재 국내 학술장에서 학문 기성세대는 교수 업적 평가를 위해 논문의 과잉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후속세대인 박사과정생은 기성세대의 학술적 이해관심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비학술적인 교수 사회를 부정하며 양가적 정동을 느껴서 양질의 논문 생산에 참여하고 있었다.

FGI 참여자들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을 향한 조롱과 동정을 내면

화하며 국내 학술장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대신에, 연구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신뢰하며 긍정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정하며 학술장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었다. 박사과정생들은 국내 학술장의 지식 생산이라는 이해관심에서 쾌감을 느끼고, 교수 집단 중심의 학계로 포괄되지 않는 학술장에서 연구자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일부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박사과정생은 국내에서는 연구자들끼리의 상호 평가가 인정되지 않기에 불쾌감을 느꼈다. 양가적 정동은 박사과정생이 학술장의 협력과 경쟁 관계에 참여해 쾌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함께 어울리는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 불쾌감을 느끼며 나타난 것으로 국내 학술장의 변화를 예측하게 했다.

FGI 참여자들은 국내 학술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했을 때 학문 기성세대의 연구자들과 경쟁, 협력하며 느낀 쾌감을 높이고 불쾌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문 게재뿐 아니라 자료 수집과 정리, 학술 연구에 기반한 다양한 모임, 활동 등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학술 정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연구 지원 및 평가 방식은 교수 임용, 연구비 수주라는 과업 앞에 경쟁해야 하는 박사학위자가 아닌 한, 박사과정생에게는 충분히 적용 가능해 보였다.⁸⁾ 하지만 박사과정생에게 있어 국내 학술장이 상대적 자율성을 갖춘 채 교수 임용, 연구비 수주, 이직과 승진 등의 다른 가치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연구자가 연구자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협력,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인지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연구팀은 연구력이라는 주제로 한정하여 FGI를 진행했기에 다른 세속적 가치들이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8) 가령, 듀크대 사학과가 “박사를 양성하는 목적과 책임감에 대해 논의”하면서 “켈을 비롯해 관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제도들이 학계의 현실과 학문후속세대의 미래를 진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박사자격시험을 없애고 박사과정생으로서 어떤 연구 활동(학술적, 대중적 영역 전반)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연구를 계획하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한 변화의 배경을 참고할 수 있다. 허유성, “박사자격시험 없애고 300페이지 ‘포트폴리오’를 만든 이유”, 《교수신문》, 2022.7.5.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0774>, 검색일자: 2023.6.16.)

후속 연구에서는 교수 임용, 직장 내 승진, 정책연구 수주 등 다양한 이해관심을 지닌 박사과정생을 포함하여 대학원 제도 밖에서 연구하는 이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지식의 성격을 조사하여, 대학원과 한국연구재단 제도 내에서 생산된 박사학위 논문, 학술 소논문의 성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 간 협력, 경쟁의 관계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4월 13일 접수
2023년 6월 22일 수정 완료
2023년 6월 8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강수영·김보경·유현미·이송희·조승희·전준하·현수진·이우창. 2022. 『한국에서 박사하기』. 스리চে어스.
- 그레그·시그워스(Melissa Gregg and Gregory J. Seigworth) 편. 2015.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갈무리.
- 김귀옥. 2018. “학문절벽의 시대, 비정규직 연구자의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문화연구』 41(3): 39-75.
- 김명진·배관표. 2022.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재정수혜가 인력양성 성과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1): 289-306.
- 김성익·김신식·김정환·배주연·안은별·양명지·오혜진·윤보라·이승철·천주희. 2022. 『연구자의 탄생』. 돌베개.
- 김승정. 2017. “인문사회과학 전공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5(4): 317-345.
- 김영순·김진희·강진숙·정경희·정소민·조진경·조현영·최승은·정지현·오세경·김창아·김민규·김기화·임한나. 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김인수·박민철·송경호·이대성·이윤정·이민기. 2022. “인문·사회분야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과제: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종갑. 2006. “입장의 결핍과 논문의 과잉: 논문 쓰기의 문제.” 『신영어영문학』 34: 43-68.
- 니체(Friedrich Nietzsche). 2021. 『도덕의 계보』. 박찬국 옮김. 아카넷.
- 드만(Paul De Man). 2010. 『독서의 알레고리』. 이창남 옮김. 문학과지성사.
- 부르디외(Pierre Bourdieu). 2012. “아노미의 제도화: 19세기 프랑스 미술계에서의 상징혁명.” 신혜영·이상길 옮김, 『인문예술잡지 F』 5: 77-102.
- 부르디외·바캉(Pierre Bourdieu and Loïc J. D. Wacquant). 2015.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부르디외 사유의 지평』. 이상길 옮김. 그린비.

- 심은비·오현석. “대학교수의 학문열정 형성과정 연구: 이공계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0(3): 719-743.
- 이정미·김은영·이길재·임소현·장덕호·한경희, 2013.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수복. 2022. 『역사사회의학의 계보학-한국 사회학의 지성사4』. 푸른역사.
- 진일상. 2008. “인문학 학문후속세대의 지위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천정환. 2010.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평가제도와 글쓰기.” 『역사비평』 92: 185-209.
- 프로이트(Sigmund Freud). 2003.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 허유성. 2022. “박사자격시험 없애고 300페이지 ‘포트폴리오’를 만든 이유.”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0774>, 검색 일자: 2023.6.16.)
- 홍덕구. 2023. “현행 인문사회 학술정책에 대한 학문후속세대의 언어와 인식 -‘신 포도’, ‘탈(脫) 대학’, ‘해야만 하는 이야기’-.” 『동아시아문화연구』 92: 167-194.
- Ahmed, Sara. 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Routledge.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Academic
Field through the Ambivalent Affect of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Korean Doctoral Students

Lee, Dae-Seong
Wonkwang University, The Institute of Mind Humanities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ambivalent affect that doctoral students in South Korea have on the academic field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field, based on the data from the 2022 Focus Group Interview (FGI) of domestic doctoral students. Through this, the paper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research fund support and evaluation method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interests of doctoral studen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South Korea. Rather than devaluing the knowledge produced within the academic field and internalizing ridicule and pity towards doctoral studen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GI participants trusted and affirmed their value as researchers and thus contributed to the reproduction of the academic field by temporarily denying some of the things that did not conform to academic values. The ambivalent affect was evident when doctoral students felt pleasure from participating i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ithin the academic field, but at the same time felt displeasure in their relationships with some of the older generation, which fueled predictions of changes within the domestic academic field. Doctoral students felt pleasure in the interests of knowledge within the domestic academic field and expressed critical opinions to gain recognition for the value of researchers working in the field that is not included in the academic world centered on professors. Doctoral students felt displeasure due to the lack of recognition for mutual evaluation among researchers in Korea. FGI participants called for academic policies that support and

evaluate not only the publication of papers, but also the collection and organization of data, and various gatherings and activities based on academic research, to increase the pleasure and decrease the displeasure they felt in competing and collaborating with established researchers when producing new knowledge in the domestic academic field.

Key Words: Doctoral Student, Focus Group Interview(FGI), Academic Field, Interests, Ambivalent Affect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 제 1 조 (발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 제 2 조 (목적)** <한국사회>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한국사회>는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2.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

집 및 발행과 관련된 공고를 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른 기관이 학회에 제출된 논문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영역 학자들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 가(O), 재심(△), 게재 부적합(X)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분석의 엄밀성, ③ 이론적용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⑥ 관련문헌의 취급, ⑦ 연구결과의 의의, ⑧ 문장의 가독성, ⑨ 논문의 독창성, ⑩ 논문제목의 적합성, ⑪ 연구주제의 중요성, ⑫ 이론적 기여도, ⑬ 방법론적 기여도, ⑭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으로 나뉘어진다.
6. 투고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은 아래의 심사판정기준을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초심결과	판정	게재 및 재심 과정
○ ○ ○		게재확정
○ ○ △	게재가능	수정권고후 게재
○ ○ X		수정을 전제로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이면 게재
X X X		
X X △	게재불가	
X X ○		

7. 재심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재심에 응하지 않기로 알려진 경우 또는 재심용 원고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재심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모두 전자메일을 이용한다.

제 10 조 (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 심사 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다시 한번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 11 조 (투고 규정) <한국사회>에 게재될 논문은 ‘<한국사회>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2 조 (계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3 조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구윤리준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속한다.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

국사회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사회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 조 (표절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표절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2008. 7. 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 (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연구윤리)

1. (연구의 객관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의 공개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 3 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 4 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자료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 5 조 (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 6 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 8 조 (중복 게재)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제 9 조 (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 전개방식 등의 항목

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 10 조 (편집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본 연구소 소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의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 12 조 (이의 신청)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보장의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비밀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 4 장 별 칙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3 조 (규칙 재·개정)

1. 이 규약은 19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원고제출

1. 투고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면서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출된 논문은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당해 원고마감은 발행일 30일전이며 발간예정일은 당해 6월 30일, 12월 30일입니다. 게재 원고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합니다.
4.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고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백색 A4 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한 원고 4부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집위원회로 우송합니다.

보낼 곳: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isrku.org>

원고작성

1. 원고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부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흔글 97 기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과시 추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고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글자크기: 본문 10p, 각주 9p, 인용문단 9p

줄 간격: 170%

여백 주기: 좌우 3cm, 위 2cm, 아래 1.5cm, 머리말·꼬리말 각 1.5cm

3.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넣어서 쓸 수 있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쓴다.

4. 원고는 표지, 국문요약, 영문 주제어(Key Words) 순서로 구성한다.

5. 표지에는 논문제목,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전화·팩스)가 명기 되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하되, 1명의 ‘제1저자’(교신저자)를 지정하여 명시하고 다른 저자들은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6. 국문요약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2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한다.

7.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8.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장·절·항·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서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3)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이용할 때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홍승직(1994: 23)은 ...”;

[예2] “...라 했다(홍승직, 1994: 23).”

(2)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예1] “...밀즈(Mills, 1956)”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가운데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김용학 · 임현진, 2000)"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양춘 · 김문조 · 손장권 · 박길성 · 김철규, 2001)"; "...(양춘 외, 2001)"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현영석, 2003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9.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10.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한 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 1)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 2)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되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가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 3)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4)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 5)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최재석. 1990.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임희섭. 1987a.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구조와 정책방향: 1961-8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93-218

- _____. 1987b. “정보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25-149.
- 菅谷章(스가랴 아기라). 1988.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社.
- Berger, P. L. and H. M. Hs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Transaction.
- Cannell, C. F., P. Miller and L. Oksenk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 389-437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Amsden, A. H. 1989. *Asian’s Next Giants: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인근달 역. 1990.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 시사영어사).
-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 손장권. 2001. “정보사회의 환경과 조직변화.” 「한국사회」 4: 147-172.
-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 Shin, Ho Hyun. 1990. “S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of Hawaii.
- Krafcik, J. F. and J. D.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Working Paper of IMVP*. MIT.
- Kollock, P. and M.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 (3) 번역서
- 휴이트(John P. Hewitt). 2001. 「자아와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심리학」. 윤인진 역. 학지사.
- 클레크 · 히긴스 · 스파이버(S. R. Clegg, W. Higgins and T.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

혁래 · 박길성 · 유홍준 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pp.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11.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제시”와 같이 표시한다.
- 2)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 3)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 4) 표 속에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 5) 표의 선은 맨 위에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 까지만 굵도록 한다.
- 6)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시에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한다.
- 7) 그림에는 x축과 y축과 곡선 · 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 8)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과 같이 표기한다.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장: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편집위원: 김재우(전북대 사회학과) 김지훈(인하대 사회교육과)
신인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심보선(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심재만(고려대 사회학과) 윤상우(동아대 사회학과)
이승철(서울대 인류학과) 이해진(충북대 사회학과)
장서현(고려대 사회학과) 정고운(경희대 사회학과)
조정우(경남대 사회학과) 조혜정(한양대 미래사회연구소)
황선재(충남대 사회학과)

(이상 가나다순)

편집간사: 배진태(고려대 사회학과)

한국사회 제24집 1호

2023년 6월 29일 · 인쇄

2023년 6월 30일 · 발행

편집 · 발행/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화: 02-3290-1651 팩스: 02-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isrku.org>

인쇄 · 출판/도서출판 새로운화

전화: 02-313-1431 팩스: 02-313-1434

ISSN 1229-036X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24 No.1 / June 2023

* 이 책은 한국리서치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ISSN 1229-036X